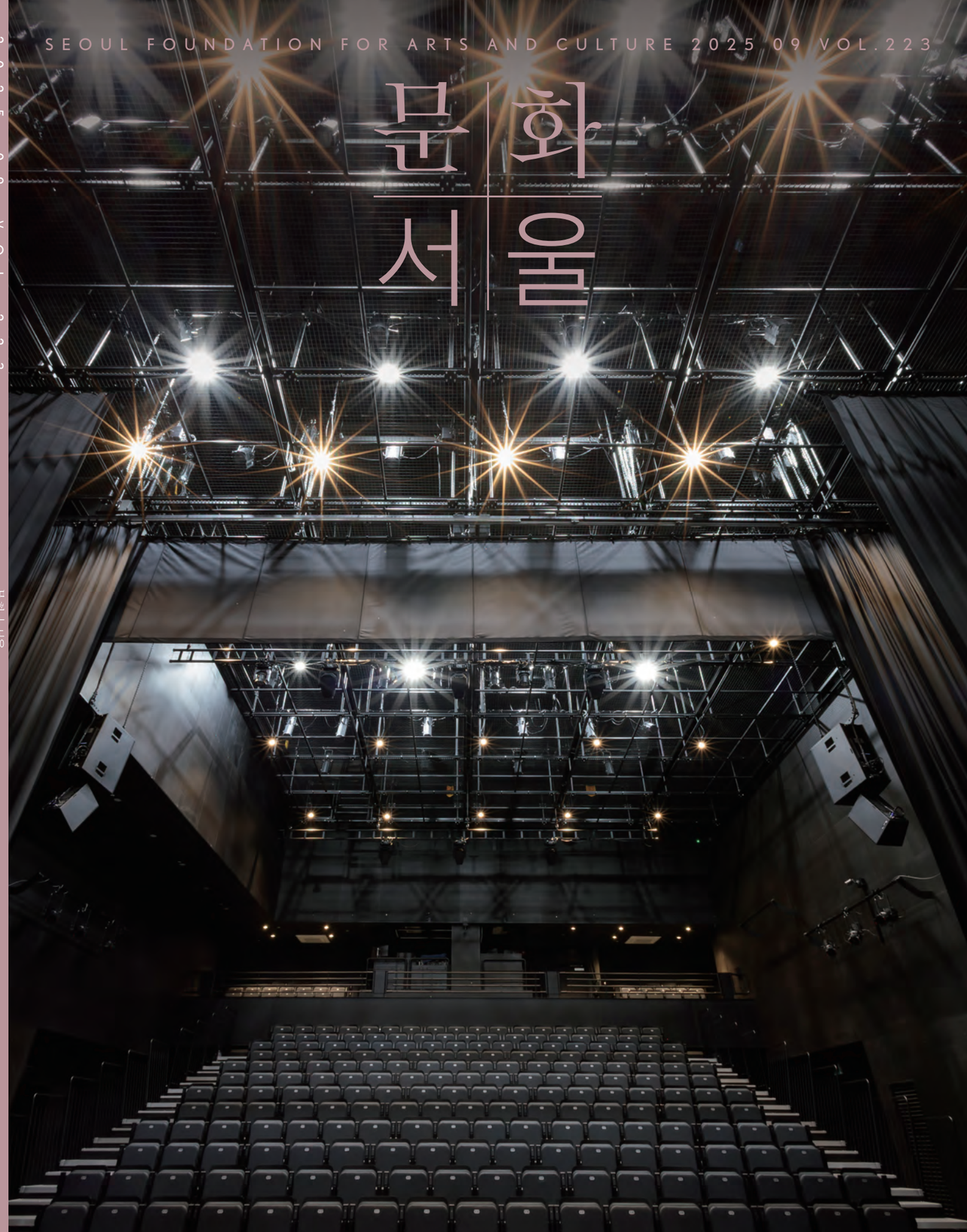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5 09 VOL.223

문화서울



2025 09 VOL.223

문화+서울

SEOUL MY SOUL

예술의전당

예술힐링놀이터
9월 27일 토요일 정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야외·실내 공간이 엄마아빠와 자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 놀이동산으로 변신한다. 팝업 예술놀이터, 목관 앙상블, 인형극 퍼포먼스, 서커스 공연, 그림책 콘서트, 가족 왈츠 파티, 아기들을 위한 음악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1

금천GC페스타
Good City 금천!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축제를 한데 모아 즐기는 금천GC페스타가 돌아왔다. 제5회 금천패션영화제, 'G밸리위크' 행사, 1인 가구 플리마켓 '스스로마켓',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반려동물 축제, 더-스포츠 페스티벌, 열린문화공연 버스킹 등 이 기간 금천구 곳곳이 축제의 열기로 들썩일 예정이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 G밸리(가산디지털 2단지) 일대 | 070.4118.3352

4

2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시선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기획전시. 2025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들이 창작과 실험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인 오픈스튜디오와 기획전시가 열린다. 한층 깊어진 작업 세계와 함께,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볼 기회.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Symbiotic Planet〉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최희승 기획자와 함께했다. 입주작가의 작업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클래식다방
서초문화재단은 9월 한 달간 매주 화·목·토요일, 서리풀 악기거리 일대 소공연장에서 '클래식다방'을 진행한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실내악부터 재즈·영화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10편 공연이 예정되 있으며, 일부는 무료로 진행되니 관심이 있다면 서초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해보자.
9월 4일부터 25일까지 | 서리풀 악기거리 내 소공연장 | 02.3471.9774

3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음악극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축제가 9월 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국립창극단을 주축으로 시작한 신규 축제 브랜드로, 우리 창극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극의 흐름과 현재를 조망한다. 해외 초청작 3편과 국내 초청작 2편, 그리고 국립극장 제작 공연 4편을 비롯해 총 23회 공연이 펼쳐진다. 중국과 일본의 음악극, 국내 단체들의 음악극이 궁금하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이 외에 여러 극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9월 한 달간 펼쳐진다.

창극하는 마녀 〈정수정전〉 ©국립극장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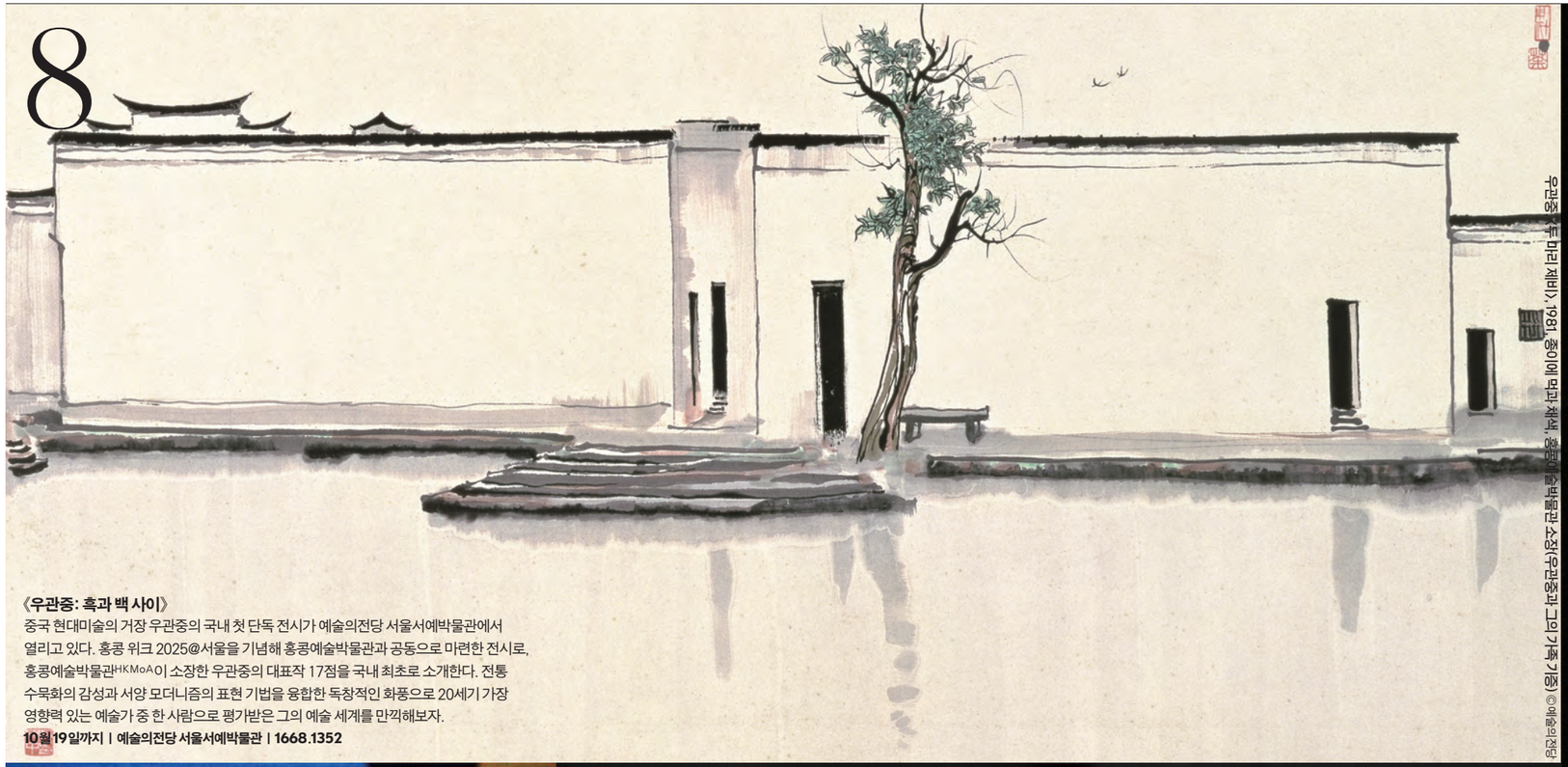
나루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즐거운 것, 그것이 진짜 배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스트리트 댄서들의 뜨겁고 유쾌한 댄스 배틀을 나루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일 토요일은 브레이킹 배틀, 21일 일요일은 오픈스타일 배틀로 진행되며, 리아킴·피직스·훅·울플러 등 화려한 출연 라인업을 자랑한다. 이틀간 페스티벌을 통해 전문 심사단과 광진구민 심사단이 함께 최고의 댄스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함께해보면 어떨까.
9월 20일과 21일 | 나루아트센터 야외공연장 | 02.2049.4700

6

안치환 콘서트 〈가을저녁, 노래를 거닐다〉
우리나라 포크록의 상징과도 같은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의 콘서트가 열린다. 1980~90년대 민중가요를 이끈 인물로, 노래패 새벽부터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정서와 삶의 깊이를 노래해왔다.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 대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9월 13일 오후 5시 | 관악아트홀 공연장 02.828.5700

7

8



우관중, 〈두 마리 제비〉, 1981, 종이에 먹과 채색, 홍콩예술박물관 소장(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예술의전당

《우관중: 흑과 백 사이》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우관중의 국내 첫 단독 전시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홍콩 위크 2025@서울을 기념해 홍콩예술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로, 홍콩예술박물관HKMoA이 소장한 우관중의 대표작 17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전통 수묵화의 감성과 서양 모더니즘의 표현 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화풍으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그의 예술 세계를 만끽해보자.
10월19일까지 |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 1668.1352

9

2025 크리에이티브×성수
첨단 문화기술을 통해 미래 창조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모여 축제를 연다. '역동적 포용성'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기술·기업이 가진 서브컬처의 혁신을 포용하는 자리.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티브×성수는 문화창조산업 페어를 시작으로 전시·콘퍼런스·토크쇼·플리마켓·패션쇼·공연 등 13개 분야 10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

제2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현시대의 정치·사회적 후퇴 현상을 주목하고자 '광란의 유턴' 특집을 마련한 서울세계무용축제가 9월 10일 개막한다. 올해는 한국 포함 13개국이 참가해 3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안무가 하랄 베하리는 춤이라는 수단으로 금기와 쾌락, 공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만들며, 아르민 호크미의 작업에서 춤을 통해 집단의 기억을 몸으로 공유하고 함께 추는 행위 자체를 저항이자 실천으로 제안하는 등 올해 축제는 '춤'이 나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축제는 서울 시내 공연장 곳곳에서 열리며 워크숍과 예술가와의 대화 등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하랄 베하리 안무 〈버티 보이〉 ©Margot Sparkes

11

서울무용센터 2025년 하반기 입주예술가 과정공유회
올해 하반기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사업에 선정된 김이슬·서동솔·전보람과 지오메트릭 스터디 크레이티브 그룹이 공간에 입주해 그동안 진행해온 창작의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들 예술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동시대 창작 활동이 궁금하다면 주목해볼 것.
9월13일 | 서울무용센터 | 02.304.9100, 0235

2025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서울특별시 내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인 영등포구에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를 선보인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국 37개 도시의 매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 서울 이벤트홀 등 영등포 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지역 예술가와 공간을 연계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박람회 기간 체험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도시센터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cultural_city_ydp)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2025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23세 피아니스트로 우승을 거머쥔 니콜라 미우센과 2위를 기록한 일본 피아니스트 히사스에 와타루의 첫 내한 공연이 될 예정. 티켓은 전석 3만 원이며, 강북구민이라면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강북문화재단 누리집에서.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 | 02.994.8503

14

2025 대한민국미술축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각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아시아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서울 등 주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며, 다양한 협력 전시와 미술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많은 행사 가운데 어떤 것을 즐겨야 할지 고민된다면 미술 전문지 편집장과 일간지 미술 기자 7명이 추천하는 전시 콘텐츠를 살펴봐도 좋겠다.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koreaartfestival) 또는 누리집(k-art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김창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창열의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하며 서구 현대미술의 어법을 한국적 정서와 접목하는 데 앞장섰고, 이후 뉴욕을 거쳐 파리에 정착하기까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을 위한 실험을 지속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창작 여정을 세밀하게 조망하는 한편, 작품 세계에 내재한 근원적인 미의식을 중심으로 물방울 회화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상흔', '현상', '물방울', '회귀' 등 네 개의 장과 미공개 자료·작품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공간으로 전시가 이어지며 작가의 삶과 창작 과정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21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김창열재단 / 국립현대미술관

SCENE

Every Body, Every One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10
함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생동하는 출발점에 서서

12
함께 움직임을
세상 모든 움직임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개관 페스티벌 미리보기

16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가며
무용의 집을 짓는 중입니다
앞서 둘러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FOCUS

COVER STORY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새 공간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연습실부터 공연장까지 움직임 예술가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진 이곳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살펴봤다.

ASSOCIATED

26
예술가의 진심
김이듬의 시는 나의 바람

32
예술인 아카이브
이현화

34
예술인 아카이브
김정현

36
페이퍼로그
축제기획2팀 송지나
열린 마음으로 예술을 바라본다면

38
인사이드
가을의 K-코드를 열다
노들노을스테이지

40
인사이드
여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극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44
서울 로컬 리포트
다양성의 도시,
영등포의 문화를 일구는 사람
이건왕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48
트렌드
도슨트, 예술의 '열쇠'가 되려면

50
해외는 지금
축제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에든버러 페스티벌

COLUMN

54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쏠에서 허허바다로
—들으면 절로 시원해지는 말

56
명곡의 뒤안길
비창, 슬프기보다 비장한

58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
제목으로 장난치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60
멈추면 보이는 것들
역사가 그 바람처럼 관통한 공간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종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9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Every Body, Every One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움직임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이 문을 연다. 예술가의 치열한 몸짓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소박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세상을 껴안는 풍경이 그려진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생동하는 출발점에 서서

서울문화재단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의 완성이자, 서울무용센터와 함께 무용 장르의 거점이 될 공간의 문을 열며 그 의의를 생각해본다.

움직임으로 마주하는 일상이 되기를

김윤경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은평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 이곳에는 특별한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2006년 수색증산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수색동 일대는 총 6개 구역 5,304세대 이상의 주거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졌으며, 그중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의 기부채납 시설이 무용 특화 예술교육센터로 조성돼 오는 9월 4일,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문을 연다.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연간 문화예술 이용 횟수 평균 7.2회이며, 이 중 무용 공연 관람은 1.5회로 조사 대상 장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공연예술 장르인 연극은 2.4회, 음악은 1.9회였다. 무용이 여전히 대중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무용은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동반한다. 한 번도 무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무용'이라는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낮은 수치의 무용 공연 관람 경험은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신호이자, 무용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마주하는 가능성의 출발점일 수 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의 프로그램은 '무용'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움직임', '춤', '댄스'라는 더 넓은 언어로 확장된다. 누군가에겐 공연이 되고, 교육이 되며, 놀이의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들게 된다. 예술가는 이곳에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창작의 동기를 되새기고, 시민은 그 만남을 통해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서대문구 홍은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용 전용 레지던시인 서울무용센터를 개관했다. 서울무용센터가 연습실과 레지던시 등 공간을 중심으로 입주예술가 사업과 안무가 교류 등 무용 장르 창작 기반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그 창작의 결과물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향유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두 센터의 지리적 거리는 5킬로미터 남짓. 가까운 거리만큼 공간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한국 무용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은평구 수색로 322-2
연면적 2,963.85㎡, 지하1층~지상4층
공연장(가로 15미터×세로 24미터, 총 256석 규모), 교육실, 연습실, 회의실 등

아주 특별한 무용예술의 거점

손혜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외래교수

2.6%. 이 숫자는 2024 문예연감 통계조사에서 공개된 2023년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비율 중 최하위를 차지한 무용 장르의 성적표다. 공연예술 분야 중 가장 높은 활동 비율을 보여준 양악 장르(23.2%)와 9배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2021년(2.6%), 2022년(2.5%) 등 오랫동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무용 장르의 현실적인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무용 장르의 문화예술활동 건수와 비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유독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마도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를 일반 대중이 더 쉽고 친밀하게 접하고 다양한 유형과 흥미로운 방식으로 직접 경험할 기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최초의 무용 전용 공공 공연장이자 무용 특화 공간으로 탄생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의 개관이 더욱 반갑고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최초 무용 전용 공연장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는 물론, 단순 공연장 기능을 넘어 댄스 스튜디오 등 움직임을 온전히 담아내는 공연과 예술교육이 공존하는 무용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더욱 유의미하다. 결국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좋은 예술가와 만나 작은 움직임 하나를 만들어보는 경험 또한 하나의 공연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로써 '보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무용을 통한 예술의 심미적 체험을 오롯이 나눌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으로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의 개관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술 현장에 '예술가'와 '예술교육가'가 마치 다른 역할을 하는 듯, 예술을 구현하는 예술가가 있고 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교육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평 센터는 공연과 예술교육이 공존하는, '보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지향점을 통해 예술(공연)과 예술교육, 예술가와 예술교육가 사이 모호한 거리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돼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결국, '가장 좋은 예술가의 예술(공연) 작업이 가장 좋은 예술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절대 불변의 법칙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은평 센터만의 가치 있는 예술 작업이 탄생하기를 소망해본다. 예술(공연)과 예술교육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전에 없던 아주 특별한 무용예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의 예술공간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될 수 있기를.

차채영·엄성아·조현정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은평팀

세상 모든 움직임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개관 페스티벌 미리보기

움직임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 공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9월 문을 연다. 연말까지 시민과 함께할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봤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움직임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 공간이다. 그리고 'Every Body Every One: 세상 모든 움직임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라는 주제는 무용인의 치열한 창작 활동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소박한 몸짓까지 모든 움직임이 존중받고 예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포용하는 열린 예술 공간으로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청년·유망·원로 무용인을 비롯해 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 등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용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공연은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무용을 더욱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모두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

9월 6일 개관 페스티벌을 여는 첫 작품은 현대무용계 아이콘으로 불리는 안은미컴퍼니의 〈드래곤즈〉다. 이 작품은 팬데믹 직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태국·터키)에서 진행된 리서치를 바탕으로, 2000년생 아시아 청년 무용수들과 협업해 완성한 작품이다. 2023년 런던 바비컨센터에서 열린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만큼, 안은미컴퍼니 특유의 강렬한 색채를 드러내는 의상과 사운드, 영상 연출로 역동적인 무대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 네 편의 공동 기획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3월 국내 우수 무용 작품을 발굴하고 무용수와 무용단체에 더 많은 실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 기획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네 팀은 기존의 작품을 발전시킨 형태의 공연을 준비했으며, 워크숍·관객과의 대화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객과의 소통을 도모할 예정이다.

첫 순서인 고블린파티 〈세일SALE〉은 전통 소재인 도깨비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현대무용 작품이다. 라이브 연주와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관객 참여형 장면이 더해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멜랑콜리댄스컴퍼니 〈0g(제로그램)〉은 그리스 신화 시시포스 이야기를 모티프로,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 속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임정하의 〈지금 이 공연〉은 움직임과 공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를 담아낸 작품으로, '무엇이 춤인가'를 질문하게 만들며 일반적인 무용 감상의 틀을 벗어난 실험적 무대를 펼친다. 마지막으로 아하무브먼트 〈음-파〉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쉼'의 의미를 되묻는다.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가', 그리고 '진짜 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색색의 줄, 사운드, 조명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 멜랑콜리댄스컴퍼니 〈0g(제로그램)〉 ©주영한국문화원

개관 공연과 공동 기획으로 선보이는 작품이 무용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무대라면, '서울댄스스테이지'는 젊은 독립무용가들을 위한 무대다. 서울문화재단 기획 공연 '서울스테이지'의 무용 특화 프로그램으로,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 장르에서 활동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작품을 트리플 빌 형식으로 선보인다. 박영성·오푸름·하지원 세 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춤언어를 관객 앞에 펼쳐 보인다.

한편, '처음 만나는 무용' 시리즈는 이름 그대로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을 무용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는 생애 처음으로 무용을 만나는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과 연계된 워크숍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은 한국 설화 속 이무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선사하는 가족 음악 무용극이다. 실제로 예술가이자 부모로 살아가는 뱀띠 예술가들의 현실과 꿈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자 한다. 이어서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 외에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국내 민간·공공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무용 전용 공연장 역할도 확장하고자 한다.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46회 서울무용제의 공연과 워크숍, 국립현대무용단 〈청, 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개관 페스티벌에 포함된 공연은 네이버와NOL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소식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누리집과 인스타그램(@sdcc.ep)에서 확인하면 된다.

↖ 가족과 함께하는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의 한 장면 ©ACC
← 10월과 11월 진행되는 〈몸으로 예술놀이〉 ©국립현대무용단

내 안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서울시민예술학교는 5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의 권역별 특화 장르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양질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브랜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서는 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예술학교 은평'이 운영된다. 예술가와 함께하는 인문 강좌와 토크콘서트 등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예술교양' 과정, 예술가와 함께 창작 활동을 체험해보는 '예술체험' 과정 등 일상을 예술로 풍요롭게 해줄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가장 먼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태지의 발레 클래스: 무대와 삶 사이〉는 무용의 문턱을 낮춰 관객과 무대를 가깝게 잇는다. 한국 발레의 살아 있는 역사인 최태지 예술감독이 발레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직접 들려주는 토크 콘서트로, 신예 무용수가 무대에서 직접 작품을 시연한다. 또한 무대를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레 동작을 배워보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춤추는 도깨비들〉은 어린이가 상상한 캐릭터와 움직임을 미디어아트 콘텐츠로 표현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시간을 통해 완성한 '춤추는 도깨비'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곳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몸으로 예술놀이〉는 무용을 바탕으로 그림과 음악, 소품을 더해 어린이의 신체·지성·감성을 조화롭게 키우는 종합 예술놀이 프로그램이다. 발레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초 중심 원데이 프로그램 〈어린이 기초 발레〉는 스트레칭부터 기본 스텝, 중심 동작, 마무리 인사까지 단계별 과정을 통해 리듬감과 창의력·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발레와 한국무용 수업이 준비돼 있다. 제2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99아트컴퍼니 〈제, 타오르는삶〉을 중심으로 구성된 '몸짓으로 타오르다'는 한국무용의 기본 원리와 감상법을 배우고, 공연 관람을 통해 창작 과정과 예술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당신의 움직임을 예술로, 메디컬 바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발레 동작에 재활 운동을 접목해 일상에서 굳어진 자세와 근육을 풀어주고 건강한 움직임을 제안하는 원데이 클래스다.

서울시민예술학교 은평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예술학교' 공식 누리집(sfac.or.kr/as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다. 다채로운 움직임이 일상을 물들이고, 그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순간을 서울시민예술학교 은평에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개관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

9월 6일 |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9월 20·21일 | 고블린파티 〈세일〉
9월 27·28일 | 멜랑콜리댄스컴퍼니 〈0g(제로그램)〉
10월 2·3일 | 임정하 〈지금 이 공연〉
10월 18일 | 서울댄스스테이지 〈트리플 빌〉
10월 25·26일 |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11월 1·2일 | 아하무브먼트 〈음-파〉
11월 8일~12월 6일 | 제46회 서울무용제 *협력
11월 28~30일 | 국립현대무용단 〈청, 연〉 *협력

서울시민예술학교 은평

9월 13일 | 최태지의 발레 클래스: 무대와 삶 사이
9월 6~20일 매주 토요일 | 춤추는 도깨비들
9월 17일~10월 15일 | 몸짓으로 타오르다
9~12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당신의 움직임을 예술로, 메디컬 바레
9~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어린이 기초 발레
10월 14일~11월 21일 | 말에서 내려오기 *협력
10월 25일~11월 15일 | 몸으로 예술놀이
11월 1일 | 가족과 함께하는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연계 교육

9월 11~25일 | 임정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Dance〉
11월 4일 | 아하무브먼트 〈툴툴〉

조현정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은평팀

무용의 집을 짓는 중입니다 앞서 둘러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은평 센터는 아직 '조성 중'이다.
문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진정한 의미의
무용의 집이 되기 위해서.**

공간 조성 초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이곳이 '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인지, '공연'을 위한 공간인지였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묻는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은 결코 나눌 수 없는 맥락에 있지만 정책 구조상 '문화예술교육'과 '창작지원'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은평 센터가 담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방향을 모색해나갔다. 그러던 중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한 '댄스하우스Dancehouse' 모델을 발견했고, 그 개념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말 그대로 '무용의 집'인 댄스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창작, 공연, 커뮤니케이션 등 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2009년 유럽 댄스하우스 네트워크European Dancehouse Network, EDN가 출범한 후 현재 28개국 54개 공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였다. 국내에도 이미 공연장을 중심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반대로 예술교육 중심의 공간에서 소규모 창작을 지원하는 등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은 결국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방향을 잡고나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댄스하우스를 경험한 예술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 앉아 관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던 경험이 좋았어요."

"무용수와 시민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워크숍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공간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센터 내 댄스스튜디오 1과 2는 당초 전문가용 연습실과 시민 대상 다목적실로 구분하려 했으나 사용자에 따른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별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특히 스튜디오 외부 복도에 열린 창을 배치해 누구나 무용의 움직임을 직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은평 센터의 블랙박스 극장은 가변성과 활용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했다. 장르별 공연은 물론, 장애인·노약자·어린이 관객을 고려해 최대한 단차를 줄였고, 무대 전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용 리허설, 프레젠테이션, 쇼케이스, 예술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공연장을 다양한 상상과 확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물론 트랜스포머처럼 '짠!' 하고 변신하는 극장은 아니기에 노동이 필요하지만, 공연장을 무한한 상상과 확장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은 센터의 지향점과 다르지 않다.

2024년 은평 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서울 내 30개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BF 인증을 받았는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첫 기록이다. 로비 티켓부스와 카페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낮은 카운터를 마련했고, 댄스스튜디오에는 별도의 리프트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승객을 고려해 천천히 움직이도록 설정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진정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아동·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물리·심리적 장벽 없이 다가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 공간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은평 센터는 아직 '조성 중'이다. 운영 기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의미의 '무용의 집'으로 성장해나가고자 한다.

1/2층 서울무용창작센터

서울무용창작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조성되는 무용 전용 공공 공연장이다. 무대 상부엔 전 방향 무대 전환이 가능하도록 텐션 와이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객석의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블랙박스 구조로 조성했다. 무대 바닥엔 무용수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탄성 강도가 뛰어난 너도밤나무 소재를 사용했다. 9미터에 달하는 높은 층고는 관객이 공연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감을 자아낸다. 총 256석 규모의 객석과 프로시니엄·아레나·양방향·런웨이형 등 다양한 무대 형식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객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1층 로비

은평 센터로 들어서는 자동문이 열리면 로비의 큰 전광판이 가장 먼저 맞이한다. 전광판에는 은평 센터 홍보 영상부터 댄스필름, 프로그램 스케치 영상 등 다채로운 미디어가 상영된다. 왼편에는 센터 이용자를 위한 물품보관함이 있어 무거운 옷이나 물품을 넣어두고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층 카페무브/티켓부스

로비의 긴 유리창을 따라 카페무브와 티켓부스가 자리하고 있다. 카페무브Cafe MOVE는 공연 시작 2 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카페 옆 작은 공간에는 무용 관련 서적과 웹진을 열람하고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티켓부스는 로비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티켓을 받은 뒤에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공연 관람의 설렘을 남겨보면 어떨까.

3층/4층 댄스스튜디오

3층과 4층엔 연습실 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댄스스튜디오가 있다. 3층의 댄스스튜디오 1은 높은 층고와 전면 거울, 댄스플로어 등 무용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갖춘 연습실이다. 내부에 탈의실이 있으며, 매트와 발레 바 등이 갖춰져 있다. 4층 댄스스튜디오 2 역시 댄스플로어가 시공돼 있고, 이 외에 빔프로젝터와 무선 마이크가 구비돼 있어 연습은 물론 워크숍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로 맨발로 연습실을 이용하는 무용수들을 위해 센터 내 다른 공간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실내화가 준비돼 있다.

지하1층/지상1층 그린룸(분장실)

일반적인 분장실과는 다르게 무용수가 공연 전 몸을 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했다. 분장실은 지하1층 그린룸과 1층 무대 뒤편 남·녀 분장실까지 총 3개가 있다. 지하1층 그린룸에는 내부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이 있으며, 바닥에서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았다. 다양한 무대 조명에 맞게 공연 분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분장실 조명에 자동 조절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했다. 1층 남·여 분장실 내부에 각각 화장실이 있는 것도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김이듬의 시는 나의 바람
예술인 아카이브
이현화
김정현
페이퍼로그
축제기획2팀 송지나
인사이드
노들노을스테이지
연극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서울 로컬 리포트
이건왕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트렌드
도슨트, 예술의 '열쇠'가 되려면
해외는 지금
축제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에든버러 페스티벌

인지현 문화일보 기자 | 사진 강민정

김이듬의 시는 나의 바람

짙은 녹음이 연희문학창작촌을 가득 채운 8월 어느 날. 여름의 한복판에서 열기를 피해 김이듬 시인을 만난 곳은 지하에 마련된 문인들의 아지트, '책다방 연희'였다.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들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는 곳. 이곳에서 만난 김이듬 시인은 "최근까지 출강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성적을 처리하느라 며칠 밤을 새울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면서 "이제는 차분하게 앉아서 작품을 집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긴 상처들을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시 세계의 변화까지 마주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재 연희문학창작촌에 머물고 계신다고요.
이곳에는 7월 초순에 들어왔어요. 생활도 집필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주 공간 외에도 도서관이나 입주작가끼리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보니 집중해서 일하기 좋아요. 사실은 올해 3월 경북 산불로 영덕군에 있던 집이 전소되면서 집필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불이 나기 바로 얼마 전에 서울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게 된 거예요. 오게 되고나서는 '여기 아니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가슴을 쓸어내린 날도 여럿이에요. 그러다보니 '인생은 우연의 집합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제는 무계획에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경북 산불로 집이 소실된 게 불과 몇 달 전이니, 상실감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5일 크게 산불이 나면서 제 작업실이 완전히 불탔어요. 집이 있었던 곳은 따개비 마을로 불리는데, 해안가 절벽에 있는 곳인 데다가 서울에서 한 번에 가는 기차도 없어요. 한번 가려면 서울에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조용히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거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서울에서 더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거기서 아예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과 책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집이 불에 타면서 사라지면서 그토록 아끼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제 꿈도 폐허가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고, 최근까지도 수면유도제 먹으면서 지내다가, 겨우 정신 차린 게 한 달도 안 돼요. 어떤 스승님이 제게 "누군가와 만났을 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명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실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25년간 시 쓰며 시적 화자도 변해

김이듬 시인을 얘기할 때 '여성에 대해 말하는 시인' 또는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2005년 발간한 첫 시집 『별 모양의 얼룩』에서부터 『명랑하라 팜 파탈』, 『히스테리아』, 『표류하는 흑발』, 『투명한 것과 없는 것』까지 모두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공론화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리얼리즘·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묶이면 갑갑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비평가들이 한국의 페미니즘 시인으로 분류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혈액형처럼 그냥 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 늘 따라다니는 감각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태생적인 목소리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뼈에 사무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처 입거나 버려진 여성에 대한 뉴스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여성에 대해 의식적으로 사유하고 글을 쓰게 된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내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 첫 시집 『별 모양의 얼룩』에 나오는 첫 시가 '거리의 기타리스트'인데, 그것도 모성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작품이에요. 아주 어릴 때, 무언가를 사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왜 엄마는 나를 떠났을까', '인간은 모두가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걸까' 등의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 게 제가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란 무엇인가, 모성애란 무엇인가로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가 흘러간 거죠.

길거리의 여자는 기타를 껴안고 있다
젖통을 밀어넣을 기세다 어떻게든 기타를
울려 구걸해야 한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더
조급해진다 기타의 성기는 소리이므로 딸을
걷어차기 시작한다
('거리의 기타리스트' 중)

시가 어릴 때부터 삶의 일부였던 셈이네요. 어린 시절부터 뭔가 외로우니까 쓰게 된 거고, 말할 데가 없으니까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글들이 자연스럽게 시가 된 거죠. 어릴 적부터 누가 나한테 시 써라, 공부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구박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네가 무슨 시를 쓰냐', '시를 쓸 거면 윤동주 시인처럼 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도 무용하는 친구들 중에 춤을 안 추면 미칠 것 같아서 추는 친구가 분명히 있듯이, 저한테는 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시를 쓰면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온 거예요.

김이듬의 시 속에 있는 여성 화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 시집 중에 『명랑하라 팜 파탈』2008이라는 책이 있어요. 팜 파탈은 예를 들어 '욕먹을 만한 여자'라고 프레임이 씌워진 여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다거나 승부욕이 있다거나 관능적인 면모를 가진 여자들을 의미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드세고 기세고 자기주장 강한 여성에 대해 굉장히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동일한 성향을 보여도 때로 남자에게는 힘세고, 승부욕이 있다는 수식어가 붙지만, 여자에게는 되바라지고, 남자를 누르려 든다는 평이 따라다녀요.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반동 심리로 팜 파탈에게 '명랑하라'고 주문한 것이죠. 그런데 실은 제 시 속의 여성 화자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가 어느새 25년째인걸요. 지금의 여성 화자는 나를 버리거나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엔 여성을 억누르는 사람들에 대해 '한 대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고 분노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너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사회에서의 잘못된 경험과 가정교육을 통해 그렇게 된 거겠지' 하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피카소나 샤갈도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바뀐 거지, 몇 년도부터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왜 시 세계나 작법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무책임한 건지 몰라도 제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진솔하게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세상과 맞대결하는 느낌으로, 치열하게 사랑으로 언어를 만졌고, 또 이후에는 그때그때 저의 모습으로 시를 쓴 거죠. 기계는 계속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찍어내면 되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당연히 작품도 변하겠죠. 그런 저를 바라보는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저, '내가 그렇게 변했구나. 앞으로는 근데 또 어쩌지' 하고서는 또 써지는 대로 쓰는 것 같아요. 부는 바람을 인간이 의도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공작소에서 하듯이 언어를 배치하기보다는 바람이 불면 훅 날리는 것처럼 시를 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온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의미인가요. 물론 그렇게 된 건 그냥 시간을 보낸 결과라기보다 오랜 기간 책 한 권 한 권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 같기도 해요. 그냥 소설 한 권, 인문학 서적 한 권, 미술 관련한 책 한 권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은연중에 가르쳐준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기도하거나 스님들이 염불 외우는 것처럼 저도 읽고 쓰면서 일종의 수련을 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타인에게서 문제점을 찾던 것을 나에게서 찾아보고, '나도 저런 면이 있었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겠지' 하며 성찰하게 된 거죠.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 시가 많이 바뀐 이유에는 '책방이음'을 운영하면서의 경험도 연관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책방을 운영하다가 재작년에 닫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잘난 줄만 알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었어요. 술집에 갔을 때 싫어하는 작가가 있으면 바로 뒤돌아 나올 정도로 싫은 사람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책방을 하면서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누구한테 책 한 권 팔려고 한참 얘기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성격이 바뀐 것도 있어요.

실제로 가장 최근인 2024년 출간한 시집 『누구나 밤엔 명작을 쓰잖아요』에 대해서는 "김이듬 시의 변곡점"이라는 평도 나왔어요. 지금의 시에 대해 양가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시를 좋아해주신 독자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시가 풀어졌다'고 하시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소통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제 지인도 몇 해 전에 나온 제 시집 보고서는 현대적이고 미학적이기는 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읽고나서 피곤했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이듬의 『누구나 밤엔 명작을 쓰잖아요』는 지난 6월 제15회 이형기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학평론가 이재복은 "이전 시에서 만날 수 있는 파격과 히스테릭한 감각 대신 이번 시집에서는 평이하면서도 익숙한 언어가 일상의 문법과 질서 속에서 새로운 시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했다.

국내외 문단에서 다수의 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독자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김이듬의 시를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결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핍이라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령 친구가 많이 없다면 결핍의 요소일 거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면 그것도 또한 결핍의 요소일 테니까요. 그런 결핍은 어쩌면 또 창조력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결핍을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 시집을 읽어주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시인이 자기 시가 독자들로부터 왜 사랑받는지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웃음)

해외 수상 소식에 위로받다

김이듬의 시가 해외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2020년 시집 『히스테리아』는 미국 문학번역가협회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에 수상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미번역상을 받을 때 심사평을 봤는데 "과도하게 비이성적이고", "그렇지만 재미있고 흥미롭고"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칭찬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칭찬이었나봐요. 거기서는 체계화되고 정제되며 논리적인 언어는 '논문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욕먹던 이유로 상을 받는구나. 내 멋대로 써도 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눈이 세 개여서 욕을 먹는데 또 다른 세계에 가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하는구나. 이 세계에서 만약에 미움받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확실히 한국 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 문화를 메인 테마 중 하나로 한 해외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K-팝, K-푸드와 함께 K-포엠poem을 하나의 분야로 다루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인데도 말이죠. 확실히 한국 시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해외 작가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시 잘 쓰냐'고 물어오기도 해요. 다만 아직은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기관을 통해 작품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서 유명 작가가 아니어도 소외된 작가들, 작품은 좋으나 아직 많이 발굴되지 않은 작가에게도 골고루 해외에 소개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항상 한국 시인 시집 몇 권을 가지고 가요. 일부러 해외 편집자한테 한번 봐달라고 주고 오기도 해요.

한국처럼 시를 많이 읽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한국인이 다 시인이자 독자여서 그래요. 우리는 시골 할머니들도 종이 주고 시 한 편 쓰라면 하면 다 써요. 우리 민족에게 일종의 시의 DNA가, 흥이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동사무소에서 시와 관련한 강의를 했는데 80대 퇴직 교사들도 와서 시를 한 수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국인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한번 툭 건드리면 시가 탁 샘솟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시를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유리 벽에 시를 적어놓고 광화문 사거리 큰 건물에 시를 걸어 놓잖아요. 그런 문화가 특별하죠.

이현화

b.1996
시각예술/섬유
@hyunhwa.rt
2024–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워크숍 '나에게 보내는 편지'
2024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워크숍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한 취타대 허리띠 만들기'
2022–2024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2023 삼일로창고극장 창고개방 '태도의 극장사: 삼일로 필리버스터–큰 돌, 작은 돌, 녹는 새' 커뮤니케이션 위빙

"섬유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형과 공예 활동을 하는 작가 이현화입니다. 전통적인 직조 기법과 현대적인 조형 언어를 더해 씨실과 날실에 삶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을 엮는 행위를 사유의 시간으로 삼고, 섬유를 매개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태초의 기억부터 저는 늘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있었어요. 집 안의 모든 벽을 온통 크레파스로 칠해놓고, 노트에는 여러모로 웃기거나 신박한 아이템을 디자인한 스케치와 낙서를 빼곡히 채워두었죠. 그때가 조금 부럽기도 해요. 지금은 흰 여백에 점 하나 찍는 것도 때론 무섭고 두려운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작은 몸으로 넓은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었나 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작업을 계속할 거라고, 예술을 업으로 삼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되게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듯, 내 상상과 기대는 현실과 다르더라고요. 아직 오랜 시간을 살아낸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왔는데,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내 색깔을 감춰야 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때 스스로가 예술가라고 자각하기보다는 '나는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작업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모두 소중한 인연과 삶의 양분이 돼 작업 활동을 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태피스트리와 자수 작업으로 〈Letter〉와 〈영혼의 제의〉 시리즈가 있어요. 〈Letter〉 시리즈는 말 그대로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 타인이 아닌 저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이 작업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내면에 대한 고백을 실로 직조하고 자수로 새긴 작업이에요. 거칠게 구겨지고 지워지고 엉킨 실과 문자들은 오랜 시간 작품과 마주하면서 이내 소멸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흔적을 기록하는 과정이었어요."

"이후 작업인 〈영혼의 제의〉 시리즈는 삶과 죽음, 불안과 평온, 소멸과 정화라는 인간의 실존적인 감각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한 작업이에요. 이 시리즈에서는 제 머리카락을 태워낸 재와 소금 등을 드로잉 재료로 활용하고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을 잇는 의식적인 과정으로써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자신을 부정하고 감추고 지워내던 시간을 지나, 더욱 대담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태피스트리를 신작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는 섬유예술·섬유공예가 항상 여성적이고 조용한 비주류의 예술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신작은 10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모든 순간과 경험으로부터 항상 영감을 찾고 있어요. 작업하면서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주로 글을 찾는 것 같아요.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읽는 것이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읽었습니다. 한창 신작에 관해 연구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과 가장 흰 물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시기 저는 제 불온한 것들을 모두 태워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 몸을 태워낼 수는 없으니, 신체 일부 중 태울 수 있는 건 머리카락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와 함께 머리카락을 태운 재를 수집해 작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태워낸 재'라는 물질이, 무게는 가볍지만 의미적으로는 무겁고 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나)을 조금도 잃고 싶지 않다는 상반된 마음이 충돌하면서 반대되는 물질을 찾게 됐습니다. 마침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책을 발견했고요. 인간 존재에 대한 외로움을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흰 물질을 작가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설이 작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내 인고의 시간을 담은 글들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사람이자, 그러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오랜 작업의 여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어리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태피스트리 워크숍을 시작하고, 또 10월에는 신작으로 구성된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b.1997
시각예술/도자
@hyeony_studio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흙을 통해 건축과 인간,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도예 작가 김정현입니다. 흙이라는 재료를 매개로 건축물 표면에서 발견한 질감과 시간의 흔적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콘크리트·철골 같은 건축 재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 가거나 녹이 스는 등 세월이 만든 변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또 다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작업을 통해 불완전함 속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업으로 삼고 싶어 노력했는데요. 대학과 대학원, 신당창작아케이드 등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연속해서 만나며 점점 삶의 방향이 예술가가 되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형식을 통해, 또는 내용과 의미를 통해 관람자들이 전시를 공감해주실 때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경험을 표현한 작품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완전한 설계〉라는 도자 조각 작품이 대표작입니다. 건축적 구조를 닮았지만, 그 완전함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도자 조각 시리즈입니다. 모든 작품은 설계에 따라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며, 표면에는 건축 재료의 질감을 직접 새겨 넣습니다. 이를 위해 3D 프린팅 롤러와 시멘트 조각, 수공 도구 등을 활용해 건축 재료 특유의 결을 흙 표면에 인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단순히 층층이 쌓는 것이 아니라 회전시키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형태로 쌓아 올립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무너져가는 건물이나 오래된 도시의 잔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안에 반복되는 규칙성과 치밀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모순적인 조합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불완전함의 미학'입니다. 소재는 주로 재활용 점토와 다양한 유약을 사용하며, 이를 1250℃에서 소성한 뒤 표면을 자연스럽게 풍화된 듯 연마해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모듈의 규칙과 붕괴의 불규칙 사이에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구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이렇듯 균열이 생기고 형태가 변하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인간 사회와 닮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각자 다른 경험과 기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형태보다, 조금 어긋나고 비워진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건축물을 관찰합니다. 그중 시간의 흔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풍화된 건축물의 흔적에서 주로 영감을 받습니다. 벽돌·콘크리트·타일·철골이나 파이프 등이 풍화된 모습이나 조형적 특징을 주로 관찰하고 이를 재설계해 붙이고 조각하게 되는 방식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소, 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그 속에서 풍부한 영감을 받습니다.

작년 일본 도쿄 신국립미술관에서 본 다나아미 게이이치의 전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회화·드로잉·콜라주·조각·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자신만의 세계관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가의 에너지에 압도됐습니다. 자신만의 기법, 형식, 내용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작업한 작품을 보며 저 역시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업을 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도자로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재료나 매체를 같이 활용해 작업하고 싶습니다. 도자로 작품을 만들 때만의 장점과 즐거움도 크지만, 다른 재료나 매체가 가진 특수성도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로는 작업하기 어려운 아주 얇은 선 요소나 특수한 물질의 표면을 표현할 수 있는 금속 재료를 접목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적 요소를 넘어, 여러 유기적인 형태를 활용해 다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그 상황에 맞게 재밌는 작업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축제기획2팀 송지나
열린 마음으로 예술을 바라본다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송지나 과장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2014년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서울무용센터였는데요. 당시 저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하던 때였죠. 그런데 직장에서 만난 안무가께서 "예술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보다 관객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술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 같은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전까지 프로그램 북에 적혀 있는 안무 의도나 작품의 배경 같은 걸 꼼꼼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무용이, '그냥 느껴보자'고 마음먹으니 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재단에서의 10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마케팅팀에서 영상과 뉴미디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홍보마케팅팀에 발령받은 그달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생중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 시절에 영상 업무를 맡았습니다.(웃음) 소셜미디어 채널에는 하루가 다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났고, 어찌 보면 온라인 채널의 호황기였달까요.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참여자의 피드백을 살피는 것이 당시 가장 흥미로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연이나 행사를 생중계하면 늘 가감 없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마치, 현장에서는 마음속으로만 하게 되는 말을 누군가 실시간 댓글로 남기는 것이죠. 대면 행사였다면 몰랐을 이야기가 온라인 세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일어납니다. 공연장이라면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봤을 공연이지만, 온라인에선 댓글 창에 '예술은 진짜 뭔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의견이 오가죠.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것과 다양한 새로운 관객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게 흥미로웠습니다.

한 편의 축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을 굳이 나누자면, 축제 주제를 발굴하고, 공모와 초청을 통해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시작한 뒤 축제를 무사히 치르고, 이후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평가 내용을 수렴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물론, 이는 아주 이상적인 계획이지요.(웃음) 제가 담당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올해 축제의 주제가 결정되면 해당 주제에 맞춰 참여 작품 공개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올해 국내 공모의 주제는 '서울다움'이었어요. 해외 공모는 '서울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시선이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물론, 매번 명확하게 축제의 주제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제보다는 개별 작품에 집중하는 해도 있지요. 올해는 '서울다움'에 집중해 서울에서, 서울다운 거리예술 축제를 펼쳐보자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비롯한 작품 외 프로그램에서도 '서울다움'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의 청계공연이 청계광장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청계광장에서 청계9가까지 공연 장소가 되는 거리를 확장했습니다. 신호등이나 찻길로 끊어지지 않는 청계천 길을 따라 5.2킬로미터를 걸어보는 '아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아트레킹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를 보는 등 예술과 함께 청계천을 걷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과 기타 프로그래밍이 완료되면 장소와 공간 활용 등 세부적인 운영 방법을 다듬어나갑니다. 7월과 8월 한여름을 통과하며 작품 배치와 프로그래밍 등을 다듬느라 청계천을 많이 걸어 다녔는데요. 올해는 정말 여러모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웃음)

내가 예술의 '통역사'라면 서울무용센터에서 3년을 보내고 2018년 금천예술공장으로 옮겨 예술과 기술이 결합하는 융합예술 사업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진행했습니다.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와 예술가가 숱하게 결합하는 분야이지요. 이 현장에서는 간극과 소통을 동시에 경험했는데요. 예술가들은 '이 부분을 조금만 키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엔지니어로서는 '조금만'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모호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예술과 다른 분야의 소통, 그리고 창작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언어를 연결하는 일을 하다보니 가끔 제가 통역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매력 넘치는 축제 현장 지금은 2년째 서울거리예술축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게 축제는, 많은 이들과 함께 '와~'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공연장이나 전시실의 일정한 규범 안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개개인이 감상을 느끼는 것이 예술에서 비롯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축제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욱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감상을 공유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서커스를 좀 무서워해요. 그 아슬아슬한 기예 현장을 잘 견디기가 어렵더군요. 그런데 그마저도 서커스축제에서 다 같이 보고 있으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함께 탄성을 내뱉고 있고,

감탄사를 자아내며 무서움을 넘어선 동질감과 즐거움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상을 나누는 것이 축제의 매력 아닐까요.

문화행정가로서의 지향점 무엇보다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함과 유연한 감각,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문화예술이 항상 새롭고 신선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고, 이미 구현된 아이디어를 다시 시도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예술성과 창의성이 감각되고, 발현되고 있죠. 그리고 문화행정가는 그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무 자체도 변화의 한복판에 있지요. 팬데믹 전과 후의 관객 특성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유연하게 환경 변화를 살피고 다시 꾸준하게 시도하는 게 필요해요. 문화행정가의 꾸준한 시도가 결국 새로운 창작과 향유의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성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사업팀

가을의 K-코드를 열다 노들노을스테이지

오는 9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글로벌 예술섬'인 노들섬이 'K-음악 발신지'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 '노들노을스테이지'를 마련한다. 지난 2년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해온 노들섬은 문화가 흐르는 노들 예술섬, 노들인디션, 노들한바퀴 등 다채로운 예술 실험을 이어오며 도심 속 쉼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형 예술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2024년부터 운영된 노들노을스테이지는 올해도 봄과 가을 두 시즌에 걸쳐 총 40회의 공연을 이어간다. 이번 가을 시즌의 키워드는 'K-코드'다. 9월 3주 동안 대중음악·발레·인디음악 공연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음Chord과 한국 문화예술의 정체성Code을 담은 축제를 선보인다.

9월 1주 #대중음악

5일 감성 싱어송라이터 윤마치MRCH와 뜨거운 라이브를 들려주는 유다빈밴드가 참여하는 'Look at ME 청년 마음 콘서트'는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의 협업으로 마련돼 마음의 울림을 건넨다. 이어 7일에는 EBS '스페이스 공감'과 함께하는 공연 'We are Pioneers'로 대중음악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 팀의 파이오니어—산만한시선·이날치·김창완밴드와 다시 한번 음악에 공감하며 시대를 넘어선 음악의 감동을 들려준다.

9월 2주 #무용

12일과 13일에는 국내 유일한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세계적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대표작 〈더카당스〉를 노들섬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이 작품은 야외라는 공간과 어우러져 실내 공연과는 또 다른 에너지와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9월 3주 #인디음악 #플리마켓

'K-감성'을 대표하는 이무진,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인디뮤지션 발굴 사업 '노들인디션'을 통해 선발된 신예 아티스트 극동아시아타이거즈·심아일랜드·까치산·잭킹콩·크리스피가 19일부터 20일까지 노들섬을 채운다. 같은 주말, 리커머스 플랫폼 번개장터와 함께하는 '번개 플리마켓 페스티벌' 또한 열릴 예정. 음악과 패션, 식음료와 핸드메이드 굿즈가 어우러진 셀러 100여 팀이 참여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다.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적 제안으로 승화되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8월 22일부터 노들라운지에서 열리는 《Look at ME 청년 마음 전시: 더 미러》는 AI와 청년 정체성을 주제로 '나다움'을 사유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디지털 시대 청년에게 정서적 공감을 선사한다. 또한 8월 26일부터 노들갤러리 2관에서 진행되는 《19:95-20:25 45개의 음音과 한마디》는 한국 대중음악 30년사의 변화를 조명하는 관객 참여형 음악 전시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노들섬은 '예술 노들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업해 더 새롭고 친근한 예술을 전하고자 한다. 일상 위에 가볍게 내려앉는 예술의 숨결을 만나고 싶다면 오는 9월 황금빛 노을과 함께 펼쳐질 '노들노을스테이지' 가을의 K-코드를 놓치지 말자.

최영한 서울문화재단 공연기획팀

©대학로극장 쿼드

여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극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2,080명–2,223명–2,016명–2,098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연간 노동자 수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42명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2025년 2~3분기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연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간의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뉴스 보도 한 줄, 혹은 정부의 통계 수치로 표현되는 이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타인의 일이자 무미건조한 숫자로 곧잘 다가오곤 한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의 희로애락과 삶이 있으며, 그와의 이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뭇조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컨테이너의 왼쪽 끝 벽을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끝 벽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이 노동자의 이름은 이선호. 그가 당초 맡은 업무는 평택항의 동식물 검역 업무였지만, 그날 갑작스레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제거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작업 설명, 안전 교육은 물론 안전모 같은 기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현장에 무방비로 투입됐다. 이런 노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배치를 비롯한 온갖 관련 법규가 지켜질 리 없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는 연극 〈엔드 월End Wall–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는 냉정한 보도 기사와 정부 통계표의 숫자 뒤 존재하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의 삶과 꿈을 따라간다.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초연되는 연극 〈엔드 월〉을 소개한다.

2021년 평택항, 그리고 2025년 여기

'엔드 월End Wall'은 우리말로 '끝 벽'이다. 여섯 면이 모두 벽으로 막힌 표준형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윗부분(지붕)과 정면, 후면의 벽이 뚫린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진 특수 컨테이너를 개방형 컨테이너 혹은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왼쪽에 붙어 있는 벽을 끝 벽이라고 부른다. 양쪽 끝 벽을 바닥 쪽으로 접어 내리면 납작해지기 때문에 위로 높게 쌓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항만 곳곳에 아주 높이 쌓여 있다. 이 컨테이너들이 가로막고 있어 노동자들은 항만에서 바다를 만나기 어렵다. 컨테이너 1개의 무게는 규격별로 약 3톤에서 6톤, 끝 벽 1개의 무게는 무려 300킬로그램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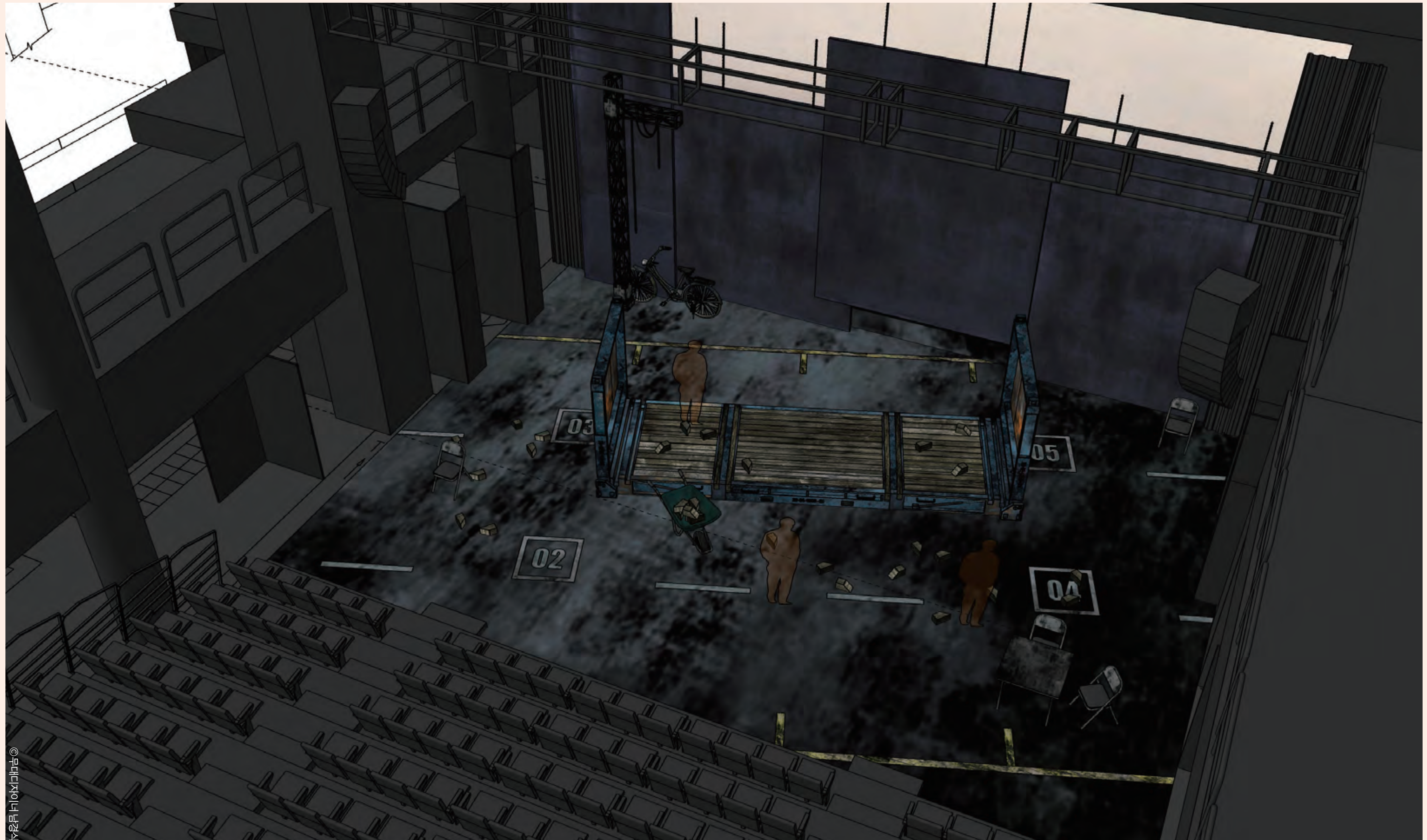
연극은 '아성'이라는 이름의 23세 일용직 노동자가 300킬로그램 무게의 왼쪽 끝 벽에 깔려 숨이 멎으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 아성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천천히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답을 찾아 기억을 반추하던 그 앞에, 숨이 멎은 뒤에야 죽음의 이유를 찾게 된 또 다른 청년 노동자 '무명無名'이 나타난다. 1분 전, 10분 전, 16분 전. 아성과 무명은 시간을 거슬러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되짚으며, 아성이 죽은 이유와 더불어 노동의 시간 속에 가려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각자의 꿈과 마주하게 된다.

실제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다루는 연극 〈엔드 월〉이 가진 특별한 점은, 비극적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거나 재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삶과 죽음, 노동과 꿈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詩적인 시선으로 관조하는 데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져버린 자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가 사라져버린 '빈자리'가 시의 은유로 표현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재에 접근하는 태도의 고유함, 품위 있는 언어, 세련된 극 구성과 인물 배치, 디테일을 조화롭게 갖춘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15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2회 서울희곡상을 거머쥔 이 작품은, 작가이자 연출가인 하수민이 직접 쓰고 연출해 완성도를 높이고 의미와 메시지를 확장했다.

건축과 무대미술을 전공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미술팀장, 〈알포인트〉 미술감독 경력이 있는 하수민 작·연출가의 탁월한 공간 연출은 관객이 그의 작품을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엔드 월〉의 공간은 노동·신체의 공간과 사유의 공간, 두 가지로 나뉜다. 관객은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무대 위에 놓인 거대한 개방형 컨테이너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장치는 인물의 존재 방식과 공간 사이의 상징적 긴장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노동과 신체의 공간인 항만을 채우는 굉음, 그리고 숨이 멎은 두 인물인 아성과 무명이 존재하는 사유의 공간을 채우는 정적靜寂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며 무대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인간의 신체에 집중해 등장인물에 생생한 움직임을 부여하고, 형식적 측면에서도 작품의 시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엔드 월〉에는 무대 디자이너 남경식,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음악·음향 디자이너 지미 세르, 안무가 이세승이 참여하며, 마광현·홍철희·손성호·장재호·김영선·심민섭·황규환·이창현·이경우·엄태호·윤희지 등 배우 11명이 출연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만 하는 법은 많지만, 자본은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을

© 대학로극장 쿼드·이강물



© 무대디자이너 남경식

알아가다보면 단순히 안전 불감증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회를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병폐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목숨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고방식. 우리 사회는 당연히 가져야 할 가치를 언제부터 잃어버리게 됐을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하는 질문이 되고, 〈엔드 월〉은 그 질문을 고요하지만 날카롭게, 시적이지만 분명하게 던진다. 작품의 부제인 '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역시 결국은 작품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이다. 저 너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각자의 '벽'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고 있을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지녀야 할 어떤 가치를 우리는 잊은 채 지내고 있을까. 올 9월, 관객은 무대 위에서 아성의 죽음을 마주한 후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참사를 겪어내며 우리에게는 아로새겨진 감각이 있다. 우리는 다행히 살아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미건조한 숫자 뒤에 실재했던 사람들을 연극을 통해 기억하고 연대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그리고 극장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질문하고 답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작·연출가 하수민이 관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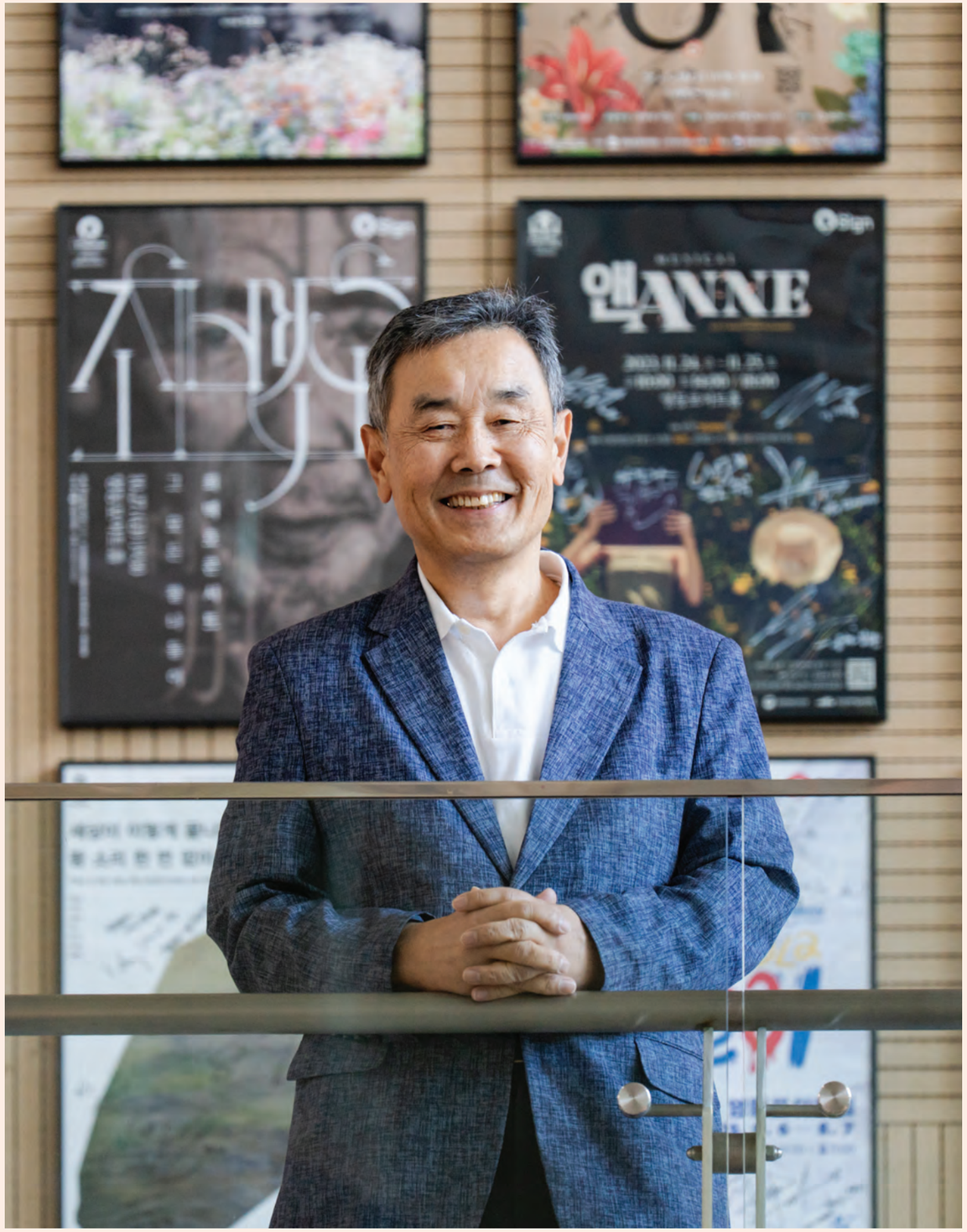
"저는 이 연극을 '땀나는 시詩'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월〉의 마지막 장면처럼, 벽 너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연극하는 행위를 통해 관객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드 월〉에서 함께함이란, 동시대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이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과 질문이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학로극장 쿼드는

올해 예술로 동시대를 직시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계'의 순간과 사회 구조적으로 고통을 겪는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성을 조명하는 작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연극 〈베를리너〉(4월), 다원예술 〈컨선드 아더스〉(6월)에 이어, 9월 첫선을 보이는 연극 〈엔드 월〉은 노동 현장 속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으로부터 주변 환경과 사회 구조로 시선을 확장하며 노동을 도외시해온 우리 사회 속 인간성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2025 대학로극장 쿼드×즉각반응 공동제작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다양성의 도시, 영등포의 문화를 일구는 사람
이건왕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영등포문화재단
YEONGDEUNGPO CULTURAL FOUNDATION

서울의 문화정책은 25개 자치구 현장에서 현실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과 예술가를 연결하며 정책의 지평을 넓힌다. '서울 로컬 리포트: 지역을 일구는 사람들' 코너는 기초문화재단의 기관장을 만나, 그들의 시선과 고민을 통해 각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과제와 성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서울 문화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한때 영등포는 거대한 구區였다. 지금 서남권에 있는 7개 구 모두가 영등포구였고, 한때 시흥과 부천·김포 등 주변 지역마저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다. 오죽했으면 지금의 강남 지역을 '영동'이라 불렀을까? 압구정에 있는 영동대교가 그 의미로, '영등포의 동쪽'이란 뜻이다.

몇 차례 분구分區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세勢가 작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서울과 지방을 잇는 관문인 영등포역이 있고, 국회의사당과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이 있으며, 문래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과 그 사이를 파고든 예술가들, 대림동의 이주민 등 다양한 색깔의 산업과 사람이 펼쳐져 있다. 이런 영등포에 피는 꽃은 무엇일까?

2020년 영등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도시'란 고유한 문화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계획을 내면 이를 승인해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5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7개의 문화도시가 있다. 영등포는 서울 최초이자 유일의 문화도시다.

영등포문화재단을 이끄는 사람은 이건왕 대표이사다. 그는 공연을 기획하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거쳐 종로문화재단·성북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하고, 2023년1월부터 이곳 대표로 취임해 지금의 영등포를 이끌고 있다. 그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영등포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전국의 모든 문화도시가 모이는 문화도시박람회를 앞두고 그를 만나봤다. 첫 질문은 문화도시박람회에 관한 것이었다.

영등포구가 서울의 유일한 문화도시이자 올해 전국 문화도시를 이끄는 '의장 도시'로 문화도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의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문화도시박람회란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전시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매년 문화도시를 이끄는 각 도시의 센터장이 모여 투표를 거쳐 의장 도시를 결정하지요. 올해 저희가 의장이 됐고,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여의도에서 문화도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도시박람회에는 문화도시 사업이 끝난1차 문화도시를 포함해 총 37개 도시가 참여합니다. 가장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박람회입니다. 많은 도시가 참여하다보니 각 도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시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저희는

'다름으로 가꾸어가는 뜰'을 주제로 37개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여의도공원에서 홍보하는 전시 공간을 만들고, 인접한 호텔에서 부대 프로그램을 열어 편의성을 도모하고, 문래동·대림동 등 영등포를 순회하며 다양한 영등포를 감각하게 하는 게 핵심 콘셉트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전시하고, 영등포를 비롯한 문화도시의 문화를 체험하며,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게 이번 박람회의 관건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 생산지'란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5년간 200억 원을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무슨 성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식은땀부터 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알차게 수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활용해 지역을 브랜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자원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문래동이 있고, 하천과 강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우선 철공소와 예술가가 밀집된 문래동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술술랩'을 만들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과 민간에서 몇 년째 추진해온 문래아트페어를 협력 개최해보니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국제아트페어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리고 영등포엔 산이 없습니다. 대신 도림천과 안양천·한강이 있습니다. 이 수변을 활용하면 좋은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고 인프라를 강화해 물이 지나가는 곳에서 문화가 머물고 흐르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에는 예술가가 많습니다. 예술가가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고, 여러 지역의 인재가 모여들어 영등포에서 문화를 기획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도시 문화에 관심을 두고, 직접 해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여 전 문화기획자와 주민활동가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3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지겠지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주도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포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부터 철공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있고, 장인과 예술가·이주민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며, 최고급 쇼핑몰부터 시장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등포의 특성이자 문화 신cultural scene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지요. 저는 이를 기반으로 영등포를 '창조적 문화 생산지'라 부릅니다.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대표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 문화 생산지'를 일구기 위해 집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1월에 취임했으니까 벌써 2년 반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지난 시기 대표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문화도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계속될 것입니다. 또 제가 제일 중시한 건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이었습니다. 영등포의 문화를 알고 느끼며, 이해하고 직접 가꿔가는 것. 그래서 전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벚꽃 축제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냥 꽃을 보는 축제가 아니라, 여러 전시와 공연을 보며 진정한 영등포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요 방향이었습니다. 선유도를 개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선유도는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곳인데, 제가 와보니 선유도역에서 이미 지역 활동가들의 여러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와 협의해 선유도역과 선유도를 연결하는 '선유도원'이란 축제를 만들고, 여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선유도의 가치를 새롭게 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영등포아트홀도 개선했습니다. 원래 이 526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을 거의 행사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 너무 아름다운 공연장이더군요. 하여 공연기획팀을 만들고,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티켓 예매를 시작하면 금세 전부 팔립니다. 시민이 지역 내에서 예술을 관람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건 시민이 경험해보며 중심이 돼야 하고, 그래야 창조적 문화 생산도 이루어집니다.

여의도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장 건립, MBC 자리에는 브라이트 도서관 건립, 풍피두 서울 개관 등 영등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영등포의 문화는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영등포는 영등포를 넘어 세계의 문화 생산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등포에는 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양평동·신길동·대림동 등 여러 지역이 개발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및 문화 환경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구나 국철 지하화가 큰 사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에는 지역을 가르던 철길이 사라지고, 큰 문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획력입니다. 저는 재단의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매달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획팀을 만들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지역의 문화 기획자와 주민 활동가를 육성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를 이끄는 회장기관으로서 서울시나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기초가 강해야 전국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각 지역의 문화는 모두 다릅니다. 기초에서부터 단단해야 문화가 강해집니다. 그러려면 기초문화재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초문화재단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N개의 서울' 같은 사업이 중요했습니다. 기초문화재단 스스로 자기 여건에 맞게 사업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서울의 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파리 지하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에서는 5분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5분만 가면 언제나 접할 수 있는 '문화 접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을 향한 관심입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거버넌스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재단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단도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영등포구에는 약 37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10개의 공연장, 4개의 전시 시설, 7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영등포구 예산의 3.14%에 해당하는 289억 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쓰인다.
영등포문화재단은 2012년 12월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됐다. '예술이 흐르고 문화가 피어나는 도시'라는 미션과 '일상이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문화생산 중심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억 원의 예산 중 사업비 약 47억 원으로 문화 거점 공간 12개소에서 기획 사업 80개를 운영했다.

이현 아트인컬처 편집장 | 일러스트 slowrecipe

도슨트, 예술의 '열쇠'가 되려면

'작품'이라는 방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술은 아티스트가 수년간 쌓아온 철학,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재료의 물리적 조건 등이 한데 어우러진 차원의 방이다. 이때 도슨트는 우리에게 그 방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를 쥐여준다. 최근 한국 미술계에서는 이 열쇠를 쥔 사람들이 전시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 도슨트'에게 설명을 들으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 심지어 팬레터를 보내는 팬덤까지 등장한 시대다. 그 열풍의 힘은 무엇일까?

1845년 영국에서 시작된 도슨트 제도는 박물관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1907년 미국으로 건너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는 1995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도슨트를 통한 작품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국내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가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슨트를 고용해 대중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도슨트는 주로 자원봉사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돼,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그 전환점은 2020년대에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 MZ세대 컬렉터의 등장, 미술 투자 열풍,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미술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특히 2020년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이 동시대 미술문화에 파격을 일으켰다. 연일 화제로 떠오른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 미술관을 순회하자 이를 보려는 대중이 미술관에 몰려들었고, 자연스레 작품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해설자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예술을 쉽고 매력적으로 알려주는 도슨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술관의 '피리 부는 사나이' 정우철은 도슨트의 매력을 이렇게 말한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비싼지,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달해줬을 때, 사람들이 깨달을 때 너무 좋아요." 도슨트는 예술 향유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현대미술, 그중에서도 특히 추상미술은 난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작품을 봐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관람객이 적지 않다. 이때 도슨트의 해설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친절한 길잡이가 돼준다. 작가의 생애와 창작 의도, 시대적 맥락과 세간의 평가까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는 스토리텔링은 낯선 작품의 문을 여는 방향키가 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대중과 예술의 심리적 간극을 좁혀준다.

또한 도슨트는 전시 관람을 '공동의 경험'으로 확장한다. 관람객은 도슨트 또는 다른 관람객과 반응을 주고받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겪는다.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슨트 프로그램은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도슨트는 예술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즐기도록 이끄는 촉매제가 돼준다. 최근에는 도슨트를 단순한 해설자가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자'로 인식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작품 이해를 돕는 가이드를 넘어 개인과 개인,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슨트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전시의 주인공이 작품이 아니라 도슨트가 된다는 점이다. 집으로 돌아간 관람객의 기억에 남는 대상이 작품이 아니라 도슨트의 말이라면,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보다 도슨트를 위한 무대에 그칠 위험이 있다. 큐레이터가 의도한 메시지가 단순화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작품을 지나치게 대중적 코드로 해석해 웃음을 유도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자극적으로 부풀려 각색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스타 도슨트' 현상은 전시가 하나의 공연처럼 소비되는 풍토를 강화하기도 한다. 관람객이 작품보다 도슨트라는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전시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것이다. 이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전문성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도슨트는 대부분 짧은 교육 과정을 거쳐 활동하게 되는데, 작품 해설이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일 경우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큐레이터보다 학문적 연구 기반이 부족하기에 설명이 흥미 위주로 흐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슨트 열풍은 한국 문화예술계의 변화된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을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즐겁게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그 성과가 전시 본연의 의미를 가리는 순간, 도슨트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 이때 균형이 중요하다. 작품과 관람객을 잇는 다리로서 도슨트가 존재하려면 해설의 깊이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자율적 감상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도슨트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예술을 어떻게 소비하고 학습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도슨트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깃든 예술 향유 방식의 변화다. 도슨트는 앞으로도 전시실에서 수많은 관람객과 작품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다만 그 열쇠가 작품의 본질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하게 열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작품이라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예술 그 자체와 마주해야 한다. 도슨트의 역할은 방의 열쇠를 쥐여주는 데 있을 뿐, 그 안까지 함께 들어가는 데 있지 않다. 관람객이 스스로 방 안을 거닐며 자기만의 감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술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김현지 드라마터그 | 사진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축제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에든버러 페스티벌

중세 고딕 건물의 축축한 진회색 외벽 위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좁고 굽이진 에든버러의 골목을 오르내리면서 도시 곳곳에서 일순간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극장들을 찾아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순례자처럼도 보인다. 소란한 거리를 메운 인파,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악기를 꺼내 드는 연주자들, 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박스오피스 앞으로 몰려드는 들뜬 낯의 관객들. 여름의 에든버러가 자랑하는 여느 광경이다.

매해 4백만 명 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 도시에서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뿐 아니라 시각예술 축제·도서 축제·영화 축제, 대규모의 군악대 행사가 8월 한 달간 계속된다. 이 들썩이는 여름의 출발은 에든버러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EIF로, 올해는 '우리가 찾는 진실The Truth We Seek'이라는 주제 아래 손꼽힌 공연들을 선보였다. 한편 공인된 주류의 바깥, 이른바 '변방'에서부터만 길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에든버러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는 하나의 테마로 엮인 선정작을 소개하는 국제 축제와 달리 거리극과 스탠드업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기꺼이 포괄한다.

올해 에든버러의 공연을 가로지르는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면, 2023년 10월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된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인 집단 학살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연극적 실천들일 것이다. 극장에서 무엇보다 극장 바깥을 상상해야 할 필요성을, 또 연극이라는 공동의 시공간을 연대의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분투하는 에든버러의 오늘을 살펴보자.

축제, 너무도 정치적인

축제의 시작을 앞둔 7월 말, 두 편의 프린지 공연이 연달아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레이철 크리거Rachel Creeger와 필립 사이먼Philip Simon은 모두 유대계 코미디언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1인극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극장 측에서는 이들의 종교·문화적 정체성은 결코 공연 취소의 사유가 아니며, 두 사람이 그간 밝혀온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다루는 공연자들의 견해가 이스라엘 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우리 극장의 입장과는 대단히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크리거와 사이먼은 자신들의 공연이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고, 공연 취소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영국의 반유대주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정치적'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 2012년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후원한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공연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극장으로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고, 올해도 스코틀랜드의 총리 존 스위니John Swinney가 참석하는 공연에 군사기업 지원을 규탄하는 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입장하기도 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작년 런던에서의 초연을 거쳐 올해 페스티벌에 초청된 연극 〈커팅 더 타이트로프Cutting the Tightrope〉(연출 크레시다 브라운Cressida Brown · 커스티 휴즐리Kirsty Housley)는 가자 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예술가의 입장 표명을 구조적으로 검열하는 영국 정부의 문화 정책, 나아가 연극계를 비롯한 영국 사회 곳곳에 여전한 인종주의·제국주의적 태도를 직접적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 전쟁범죄를 경험한 극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민감한 주제'라며 거절하는 예술감독, 팔레스타인 국기를 상징하는 수박이 무대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극장 관계자와 같은 인물들을 그리는 짧은 희곡이

↑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공연된 〈커팅 더 타이트로프〉의 한 장면

↓ 고딕 건물이 눈에 띄는 축제 기간 에든버러의 풍경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뒤편으로는 영국 정부 기관들이 시행한 크고 작은 검열의 증거와 영국의 원조로 이스라엘 군대가 벌이는 폭격과 살해를 상징하는 숫자가 영사된다. 연극은 오늘날 영국 사회가 동조하고, 공모하며, 조장하는 폭력과 검열, 정치적 무관심과 제노포비아의 현실을 논하는 자리로 관객들을 깊숙이 초청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발족한 단체 '웰컴 투 더 프린지, 팔레스타인Welcome to the Fringe, Palestine'에서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팔레스타인인 예술가들을 에든버러 프린지로 초대하고, 그들 고유의 역사와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폭력적 추방이 벌어지기 전 서안지구가 간직한 풍경을 회상하는 1인극, 1948년 나크바의 참혹한 광경을 담은 인형극, 팔레스타인계 극작가 달리아 타하Dalia Taha의 신작 '망고가 먹고 싶어서Craving Mangoes'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민중가요 디제잉과 아랍어 힙합 공연, 민속춤 답케Dabke를 나눠 추는 워크숍까지 형식과 장르를 막론하는 공연 20편이 나흘간 무대에 올랐다. 이로써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공동의 시간으로 점유하기를 기꺼이 요청한 것이다.

에든버러를 기반으로 한 스코틀랜드의 지역 극장이 마련한 연대의 장도 눈에 띄었다. 트래버스 극장Traverse Theatre에서는 배우이자 활동가인 칼리드 압달라Khalid Abdalla의 1인극 〈노웨어Nowhere〉를 선보였다. 이집트인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스코틀랜드로, 아일랜드로, 런던과 카이로로 옮겨 다니며 다중의 정체성을 입게 된 압달라는 서구 제국의 시선으로 그려진 아프리카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진 고통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자의 해변에 늘어진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한다.

한편 서머홀Summerhall에서 선보인 〈밸푸어 레퍼레이션Balfour Reparations〉은 1917년 스코틀랜드의 아서 제임스 경이 실시한 밸푸어 선언의 시오니즘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집단 학살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2025년 정부에서 보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가상의 미래를 그린다. 보상위원회의 일원으로 초청된 관객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무용가가 객석으로 건네는 마이크를 직접 받아 들고 영국이 실천할 수 있는 다방면의 보상과 반성을, 그로써 견인할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인 언어로 상상하고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시민의 책임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니 지금 에든버러에서는 평화 없이는 정의도 없다는 긴급하고 중대한 요청이, 무엇보다도 극장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세계를 비추고 연대를 길어오는 시공간, 올해 에든버러의 무대가 정의하는 축제의 마땅한 의미다.

서울시민예술학교

2025
서울시민예술학교
가을 시즌

09.03-12.17

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예술교양, 예술체험, 예술마스터
3단계 과정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 창작 경험, 심화 탐구까지
폭넓은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강북·은평

COLUMN

낮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시가 줍는다
쓸에서 허허바다로—들으면 절로 시원해지는 말
명곡의 뒤안길
비창, 슬프기보다 비장한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
제목으로 장난치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역사가 그 바람처럼 관통한 공간

쏠에서 허허바다로 —들으면 절로 시원해지는 말

오은 시인

얼마 전 국어사전에서 '쏠'이라는 단어를 만났다. 처음엔 "소나뭇과의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솔'을 떠올리고 나무와 관련한 단어라고 짐작했다. 그러다 "먼지나 때를 쓸어 떨어뜨리거나 풀칠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인 또 다른 '솔'을 떠올리고, 어쩌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게이름 중 하나인 '솔'에 긴장을 담아 발음하는 단어라면? 솔기의 다른 이름인 '솔'에서 유래한 단어라면? 얼른 뜻을 보면 되는데, 나는 자꾸만 유예하고 있었다.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유추하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이다. 심호흡을 한 뒤, 쏠의 뜻을 보았다. "작은 폭포". 순간 머릿속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쏠쏠한 물살로 흘러내리는 물줄기, 이는 한여름에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니던가. 머릿속에서 폭죽 터지듯 탄성이 터졌다. 시원했다.

쏠 다음에 있는 단어는 '쏠라닥쏠라닥'이었다. '쏠락쏠락'으로 줄여 쓰기도 하는 이 단어는 "쥐 따위가 이리저리 쏘다니며 물건을 함부로 자꾸 잘게 물어뜯거나 끊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한다. 다락과 쌀자루를 재바르게 오가는 쥐의 모습이 그려진다. 쏠라닥쏠라닥의 두 번째 뜻은 "남의 눈을 피해 가며 좀스럽게 자꾸 못된 장난을 하는 모양"이고, 세 번째 뜻은 "가위로 자꾸 조금씩 베거나 잘라 내는 모양"이다. 마치 틈날 때 국어사전을 뒤적이는 내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아 웃음집이 터지고 말았다. 국어사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 같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데도 남의 눈을 피해 가며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위로 자꾸 조금씩 베거나 잘라 내듯, 이 단어에서 저 단어로 건너가 머물렀다가 그 단어가 이끄는 또 다른 단어에 도착하기도 한다.

쏠에서 출발한 단어의 여정이 어디에 당도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오늘은 물속을 유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더위를 가시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으니까. '물보라'부터 시작한다. 물보라를 떠올리면 으레 눈보라가 떠오르니까. 여름에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에 여름을 바라는 건 내 오랜 피서避暑법이자 피한避寒법이니까. 물보라는 "물결이 바위 따위에 부딪쳐 사방으로 흩어지는 잔물방울"을 가리킨다. 물보라가 인다고도, 물보라를 일으킨다고도 쓰인다. 흔히 이를 순리로 여기지만, 나는 물결의 의도에 대해 상상해 본다. 자신이 떠안은 일의 부피가 너무 커서 하염없이 부딪쳐 그것을 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보면 물보라를 일으키는 것은, 마침내 일어나고 마는 것은 물 자신일지도 모른다. 모양이 비슷한 데서 착안해 물보라를 비유적으로 '메밀꽃'이라고 하기도 한다. 메밀꽃 필 무렵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바다에서는 매일매일 메밀꽃이 피어난다.

물보라 하면 자연스럽게 '물보낌'이 따라온다. 물보낌은 "여러 사람을 모조리 매질함"이란 뜻이다. 이 단어가 물과 관련된 단어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디 그러지 않길 바란다. 물이 누구나 무엇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만큼 땅 위에 넘쳐흐르는 물"을 뜻하는 '물마'나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물. 또는 그런 물을 뒤집어쓰게 되는 일"을 가리키는 '물벼락'을 마주할 때도 가슴이 철렁한다. 물은 우리가 사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것이 넘치거나 부족할 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고인 물은 썩지만,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고여도 흘러도 넘쳐도 물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물을 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다.

'물과 불'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거나 맞서는 상태"를 일컫는다. '물과 고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키고 '물과 기름'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여 겉도는 사이"를 뜻한다. 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한풀 꺾인 사람"을 '물 건너온 범'이라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사람"을 '물 밖에 난 고기'라고, "물에 흠뻑 젖어 몰골이 초췌한 사람"을 '물에 빠진 생쥐'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다. '물 찬 제비'를 꿈꾸는 사람이 '물 만난 오리걸음'처럼 어기적거리며 급히 달려가는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말이다.

된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으면 절로 시원해지는 말이다. 무슨 물이 시원할까, 물이 고픈 듯 생각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몸이 시원해지는 말, 속이 시원해지는 말이 필요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 마시는 물 한 모금 같은 말이 절실하다. 물 흐르듯 나의 시선은 '마중물'이라는 단어에 가닿는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뜻하는데, 마중물을 부어야 비로소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의 결심이 마중물이 되기도, 누군가의 도움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쩌되든 마중물이 있어야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뭍물'은 "바닷물 이외에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을 뜻한다. 호수나 하천에 있는 물이나 지하수 등을 떠올리면 된다. 이 중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골물'이라고 부르고 "보얀 빛을 띤 샘물"은 '암물'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물의 겉면"은 '물낯'이라고 한다. 물이 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흙탕물이나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꽤 더러워진 물"을 가리키는 '고장물'을 떠올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붉은 황토가 섞여 탁하게 흐르는 큰물"을 '붉덩물'이라고 하는데, 붉은 것이 덩이져 떠다니는 물이 절로 떠오르는 단어다.

물에 대한 상념은 바다로까지 내뻗는다. 물의 종착지일 바다, 물에 의지가 있다면 아마도 마지막에는 바다로 흘러들고 싶지 않을까. 개중 '허허바다'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다다. 허허바다는 "끝없이 넓고 큰 바다"를 가리킨다. 아마도 빌 허虛자에서 유래한 듯하지만, 기막힌 것을 보거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허허"라고 말한다. 허허 다음에 으레 찾아들곤 하는 쉼표 덕에 우리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여름에 바다를 찾는 이가 많은 이유는 일단 물속이 시원해서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이 넓어지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쏠이 허허바다가 되는 장면을 상상한다. 작은 폭포가 커다란 물웅덩이를 이루고 물웅덩이가 고여 있기를 멈추고 유유히 흐르는 장면을, 작은 물줄기가 강줄기를 만나고 마침내 바다로 스스럼없이 스며드는 장면을, 바다가 몸집을 키워 대양이 되는 장면을. 그야말로 만경창파萬頃蒼波다. 머릿속에 쏠을 둔 사람에게는 상상이 마를 날이 없다.

비창, 슬프기보다 비장한

유윤종 음악평론가, 전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음악사에는 '비창'이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작품이 두 곡 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1798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1893이다.

먼저 '비창'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슬플 비悲 슬플 창愴. 매우 슬프다는 뜻은 대략 느껴진다. 그렇지만 음악 작품의 제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에서 '비창한 기분을 느낀다'라거나 '비창하게 흐느꼈다'라는 식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추측하건대 우리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인 일본어 비창悲愴(히소오ひそう)을 직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비통한 최후悲愴な最期', '비장한 결의悲愴な決意'라는 식으로 문어체에서는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이 두 작품에 일본인이 사용한 제목 '비창悲愴'은 무엇을 번역한 것일까? 베토벤은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 8번에 직접 'pathétique'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다. 프랑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비장한', '감동적인', '감격스러운'이라는 뜻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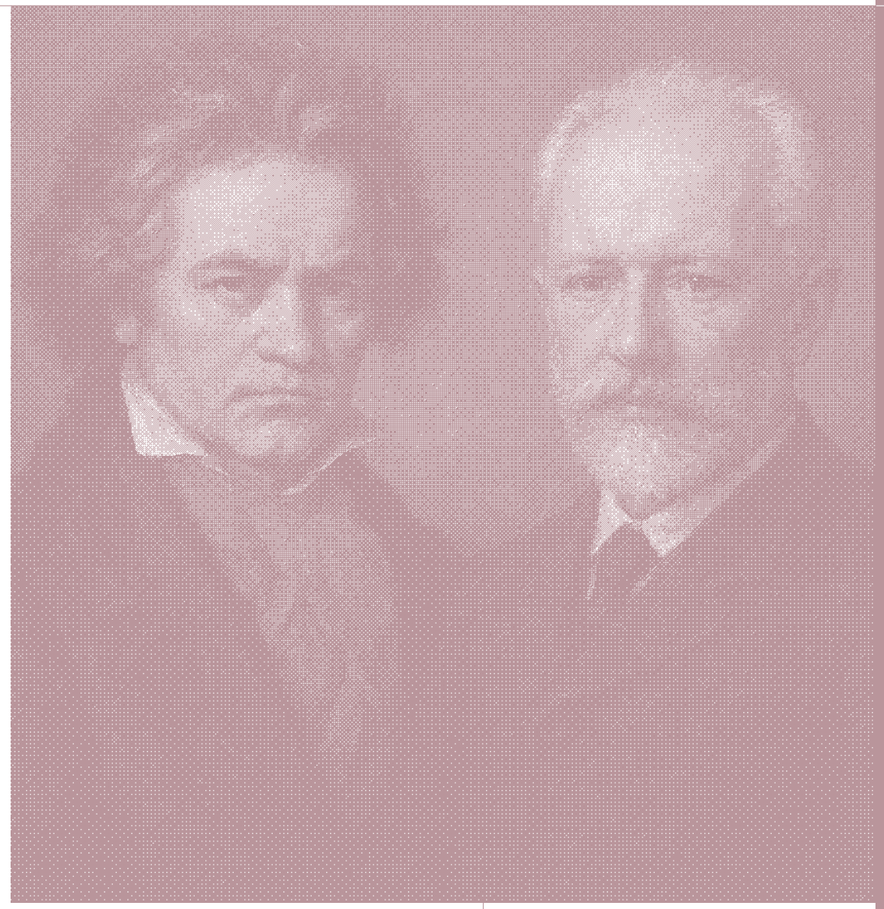
한편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에 제목을 붙인 사람은 작가인 동생 모데스트 일리치 차이콥스키로 알려진다. 그의 회상은 이렇다.

"형의 지휘로 이 교향곡이 초연된 다음 날, 형은 출판사로 악보를 보내기에 앞서 제목을 붙이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나는 '비극적'이라는 제목을 제안했지만, 형은 마뜩잖아 했다. 나는 방을 나왔다가 갑자기 '비창'이라는 제목이 떠올라 다시 방으로 되돌아가 형에게 말했다. 형은 '브라보, 모디(모데스트의 애칭), 바로 그거다. 비창이다'라고 외치고는 악보 표지에 이 제목을 썼다."

차이콥스키가 악보 표지에 쓴 제목은 'Патетическая (pateticheskaya)'다. 로마자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원은 프랑스어 'pathétique'와 같다. 차이콥스키가 속한 유르겐손 출판사는 국외로 악보를 보낼 때 프랑스어 제목을 사용했다. 러시아어-한국어 사전에서 'Патетическая'를 찾아보면 '강렬한 감흥을 일으키는', '강한 감동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상적인', '애절한'이라는 뜻이 나와 있다. 프랑스어 'pathétique'보다는 한결 슬픈 느낌이다.

나는 모데스트가 이 곡의 이름을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어왔다. 다른 사람 아닌 차이콥스키 자신이 이 제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두 작품의 시작 부분을 들어보면 두 곡 모두 음계상 '라-시-도-시'로 한 음씩 움직이는 선율로 시작한다. 느낌은 사뭇 다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시작 부분은 강렬하고 비장하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은 비통하고 애절한 느낌으로 시작한다. 베토벤이 세상을 움직이려는 포지티브positive(양)의 느낌이라면, 차이콥스키는 세상을 외면하고 싶은 네거티브negative(음)의 느낌이다. 얼마간은, 두 단어의 프랑스어-러시아어 버전이 주는 느낌과도 통한다.

차이콥스키는 동생이 이 제목을 지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이 곡을 초연하고 9일 뒤, 악보에 제목을 써놓고는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대체로 거의 모든 교향곡이 빠르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로 끝나는 것과 달리 그의 이 마지막 교향곡은 슬픔의 극한을 달리며 사라지듯이 끝난다. 그 때문에 이 교향곡은 '차이콥스키의 음악적 유서'라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그가 콜레라로 위장하기 위해 비소를 마시고(콜레라와 비슷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자살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동시대 사람들도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비창' 시작 부분이 비슷하다고 인식했다. 모데스트도 이 때문에 제목을 지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면서 '사람들은 이 곡이 베토벤의 비창을 연상시킨다고 말하지만, 형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것 역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모데스트가 진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형 차이콥스키의 마음속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으므로, 작곡가가 "브라보, 모디"를 외쳤을 때 '내가 생각한 것도 바로 그거야!'라는 뜻이었을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두 곡은 발표된 시대도 한 세기나 차이 나고 연주 형태도 한 사람이 연주하는 피아노곡과 수십 명이 굉음을 쏟아내는 교향곡으로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두 곡 모두 해당 장르의 최고 인기곡 중 하나로 꼽힌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은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표현으로 인해 당대 음악계에 도전장을 내미는 작품으로 여겨졌다. 보수적인 피아노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당돌한 곡을 절대 연주하거나 흉내도 내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자주 발견된다.

베토벤의 이 소나타는 유독 대중문화에 자주 인용된 곡이기도 하다. 2악장 주선율은 루이스 터커의 1982년 히트송

두 '비창'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정명훈&라 스칼라 필하모닉 with 니콜라이 루간스키
9월17일 오후7시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차이콥스키 교향곡6번 '비창'

아름다운 목요일 '위대한 작곡가'-김태형 piano
9월25일 오후7시30분 | 금호아트홀 연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8번 '비창', 19번, 23번 '열정' 외

‘미드나이트 블루’와 빌리 조엘의 1983년 ‘디스 나이트’에 인용된 것을 비롯해 수많은 가요에 전용됐다. 1악장과 3악장의 주요 선율도 댄스 댄스 레볼루션DDR을 포함한 수많은 게임에 사용됐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비창’의 인기도 이에 못지않다. 3악장의 주선율은 RPG 게임 ‘데스티니’ 등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악장의 무너지는듯한 구슬픈 선율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비에이터〉 등에서 주인공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처절히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 콘서트 무대에서 베토벤 못잖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구스타프 말러도 이 교향곡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9번1909의 3악장이 빠르고 격렬한 스케르초이며, 이어지는 4악장이 무너지듯이 사라져가는 비통하고 느린 악장이란 점 등은 ‘비창’ 교향곡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말러가 이 점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을 자주 지휘한 그가 이를 의식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비창 교향곡 자체에 대해 말러는 ‘피상적인 곡’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다면, ‘구조 자체는 마음에 들었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나만의 버전으로 이 구조를 응용하고 싶었다’고 답하지 않았을까.

제목으로 장난치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송현민 음악평론가

며칠 전, 기대되는 연극 하나를 접했다.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다. 설정 자체가 재밌다. 무대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장의 허름한 분장실이다. 주인공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의 언더스터디인 에스터와 밸은 언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모른 채 한없이 기다리기만 한다. ‘언더스터디’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주인공과 똑같은 배역을 연습해놓는 사람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초조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초조하지도 않다. 언제 어떻게 투입될지 모를 그들의 기다림에는 주인공이 오지 않는다면 무대에 주역으로 데뷔할 수 있는 흥분이 녹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공연 홍보 문구에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기다림과 초조함은 뜻밖의 사건과 맞물려 흘러간다. 스포일러를 해선 안 되니 여기까지만.

제목은 작품의 반도체

예술가들과 인터뷰해보면 제목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결정체다. 구상과 기획, 줄거리 짜기와 배역 선정, 작품 창작과 실행 등의 순서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 떠오르는 그 한 줄이 제목이다. 그래서 곧 선보일 작품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듣고 “제목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아직 제목은 못 정했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이다. 작은 반도체에 수십만 개의 기능이 집적된 것처럼, 제목은 작품을 대변하는 한 줄의 반도체와 같은 것이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가 어떤 구상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비틀며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작 〈고도를 기다리며〉 뒤에 붙인 ‘기다리며’라는 작은 단어가 상상력에 불씨가 된 것이 아닐까?

재밌게 보았던 연극 중 〈웃음의 대학〉에서도 이러한 ‘제목 놀이’가 등장한다. 전쟁기에 극작가와 검열관의 대립을 다룬 작품이다. 검열관은 전쟁기에 사랑 타령이나 하는 대본을 썼다고 나무라지만 작가는 말한다. “제목을 똑바로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전쟁 시국을 반영해 ‘로미오 대 줄리엣’으로 했습니다.” 글자 하나 바꿨는데 상상력이 열리고 극 중 상황을 웃음과 함께 비틀어버린다.

나는 그날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중간에 ‘와’가 들어간 제목들을 바꿔 보았다.

(왠지 미녀가 이길 것 같은) ‘미녀 대 야수’, (왠지 거지가 이겼으면 하는) ‘왕자 대 거지’, (공연 후에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결’ 등등. 작품 구상과 정리 뒤에 잡히는 제목을 창작의 가장 첫 번째에 놓으면 뭔지 모를 상상력의 불이 지펴지는 것 같다.

별주부와 이몽룡은 왜 그랬을까?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국악에도 잘 알려진 명작이 있다. 판소리로 접할 수 있는 수궁가·흥보가·춘향가·심청가·적벽가다. 주인공에 대해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다.

그들을 새롭게 엮는 제목들을 떠올려보니 줄거리가 자연스레 나온다. 흥보가를 비틀어 ‘흥보 대 놀보’라는 제목으로 형제간에 싸움을 ‘박 터지게’ 진행시킨다. ‘춘향 대 몽룡’으로 남녀의 성격 차이를 극대화해보고, ‘심청이 대 심봉사’로 하여 부녀 간의 싸움을 부추겨본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캐릭터들도 엮어 본다. ‘별주부와 몽룡이’는 각각 수궁가와 춘향가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궁의 화공이 별주부에게 그 모습을 그려준다. 별주부는 물 밖으로 나오려 수면에 있는데, 인당수로 뛰어든 심청이와 부딪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그러고 나와 만난 이는 한양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몽룡인데, 토끼의 얼굴이 가물가물한 별주부는 그와 토끼를 착각해 간을 주면, 용궁에 거나한 자리를 선사하겠다고 감언이설로 꼬득인다. 시험 공부에 지친 몽룡이는 그런 토끼를 따라 용궁으로 가고, 몽룡이가 도망간 것을 안 춘향이는 몽룡이를 찾기 위해 화가 난 채 인당수로 풍덩 뛰어든다. 하지만 춘향이는 심청이 대신 황후가 되어 나타난다. 별주부와 몽룡이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판소리 수궁가·춘향가·심청가가 꼬여버리는 설정이다.

여러 편의 판소리를 한데 구성한 국립극장 마당놀이 ©국립극장

상상력이 떨어지면 제목으로 SOS

수궁가와 적벽가도 엮어 본다. 수궁가의 별주부와 토끼는 서로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별주부 ‘와’ 토끼’로 엮으니 둘이 합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용궁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무장 집단으로 변한다. 그렇게 둘은 용궁으로 향하는데, 때마침 적벽대전에서 패한 전쟁의 신 조조를 만나 ‘별주부와 토끼와 조조’전이 펼쳐진다. 결국 별주부와 토끼는 조조의 힘을 빌려 용궁을 탈취하지만, 다시 ‘수궁가 대 적벽가’가 되어 조조가 모든 권력을 거머쥔다는 설정이다.

(이렇게 적어보니 이 칼럼의 연재 제목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처럼 조금 쑥스러운 나만의 상상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목을 비틀면 보이지 않던 이면이 보이는 것 같다. 패러디 작품의 시작도 이와 같은 것이다. 중국 소설 중 『금병매』도 원래 『수호전』의 일부로

역사가 그 바람처럼 관통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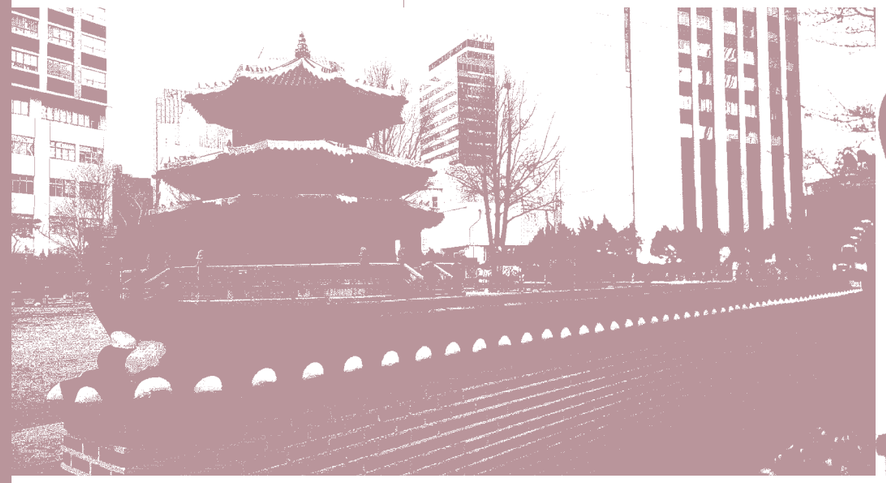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서울이 매력적인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 있다. 백제 건국 때부터 치자면 2천 년 이상이요, 지속성으로 따지자면 조선 건국 이래로 630년 넘게 '수도 서울'의 위상이 이어졌다. 그런 서울에서도 역사와 역동성의 공존이 가장 극명한 곳이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이다.

호텔 정문으로 곧장 들어서지 말고, 뒤뜰을 좀 거닐어보자. 팔각 지붕이 3개 층으로 쌓인 화려한 전통 건축물이 고층 빌딩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옛 환구단 터를 지키고 선 황궁우다. 고종이 1897년 이곳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다.

사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고대 농경사회의 제천 의례는 고려 시대 원구제로 이어졌다. 조선에서는 1457년 세조가 환구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꽤 오래 중단된 환구단 제사를 고종이 재개했다. 고려 때 명나라가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황제뿐"이라며 제후국 고려의 원구제를 폐지하게 했다. 이 같은 역사를 떠올린다면 자주국의 위상을 강조했던 고종이 굳이 환구단 제사와 함께 황제 즉위식을 개최한 것이나,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기어이 호텔 부지로 환구단 자리를 택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환구대가 헐린 터에 홀로 남은 황궁우는 고종의 지시로 1899년에 완공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1888년 개항기 인천에 세워진 일본식 '대불호텔'이며,



두 번째 호텔이자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1902년 서울 중구 정동에 '손탁호텔'이 들어섰다. 1914년 건립된 조선호텔은 본격적인 호텔업의 시작을 알렸다. 일제 강점기 철도국이 관할한 '조선철도호텔'로 시작해 광복 직후 '조선호텔'이 됐다.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이 점령했고, 서울 수복 이후에는 미군 휴양소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호텔로 우뚝 섰다.

호텔의 품격은 로비의 예술품이 말해준다. 웨스틴 조선의 로비 한가운데를 차지한 작품은 영국의 조각 거장 헨리 무어의 1985년 작 〈피난처 속 형상Figure in a Shelter〉이다. 헨리 무어의 대표 시리즈 '와상Declining Figure' 중 한 점은 2016년 6월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서 약 360억 원에 낙찰된 적 있다.

헨리 무어는 조각사에서 한 장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가다. 기념비와 인물상 위주로 전개되던 조각의 역사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오귀스트 로댕은 사실적인 인체 묘사에 적나라한 감정까지 담아내며 현대 조각의 서막을 열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추상 조각'을 개척한 조각가가 있으니 알베르토 자코메티·콩스탕탱 브랑쿠시, 그리고 헨리 무어다.

영국에서도 제일 춥다는 요크셔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무어는 천부적 재능으로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했는데 고전적 교육을 받았음에도 1925년 파리에서 본 아즈텍 문명의 조각들을 보고 마음을 뺏긴다. 유수의 박물관·미술관을 다니며 숱한 작품을 봤건만 근원적이고 아름다움은 정작 원시미술에 있었던 것. 파블로 피카소 등 당시 미술인들이 가장 오래된 원시예술에서 가장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찾으려 한 것이 일종의 유행이기도 했다.

이곳 호텔 로비의 작품은 참전 군인의 투구 같은 두 개의 반구형 구조물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앉은 생명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한 피난처 아니겠는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가스를 마시기도 했던 무어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 '헬멧Helmet' 시리즈를 시작했고, 평생의 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전쟁 상황이 더욱 갈구하게 만드는 피신과 안온의 감정을, 그는 유려한 형태의 추상 조각으로 그려냈다.

천천히 걸어 조각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자. 육중한 청동 조각이지만 강가에 뒹구는 조약돌 같은 부드러운 곡선미를 지녔다. 파도와 바람에 쓸리기라도 한 듯한 표면도 돌멩이를 닮았다. 반듯하고 매끈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대신 다정한 생동감을 얻었다. 둥근 껍질의 안쪽이 아늑한 동굴 같다. 세모꼴·타원형 등으로 빚은 형상을 인물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산 위로 달이 뜬 풍경이라 해도 상관없겠다. 옛 환구단을 품은 세련된 현대식 호텔 로비에 생명을 품은 동굴 형상의 작품이라니 더욱 상징성이 크게 느껴진다. 무어의 조각은 2012년 1월에 설치돼 1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사와 시간이 그 바람처럼 호텔을 관통한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ING SOON

7월 무더위 속 개관을 두 달여 앞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의 마지막이 될 이곳을 지하부터 옥상까지 빠짐없이 살펴보며 공간 구석구석 무용수와 관객을 생각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개관할 때까지 힘내세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LAST SCENE

"그래. 변했지. 연극도. 가볍고 빠르고. 관객들은 짧은 것에 익숙해. 직면하고 부수고 사유하고 저항하는 작품은 드물어."

"시대의 부응은 자연스러운 거야. 고전은 퇴물이 되었고 연출가들은 이제 옛 작품을 소환하지 않아. 대본 안의 함의를 찾는 일은 고리타분해져 버렸어."(이철희 재창작·연출 〈삼매경〉)

무대를 아주 깊이 바라봤습니다. 꼬박 두 시간 동안요. 그곳에서 30년을 견뎌온 배우를 바라보며 나 또한 나다운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시간에 도파민을 일으키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잔잔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예술적 사유를 터뜨리는 공연이 주는 감동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극장으로 발걸음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 국립극단

EPILOGUE

이번 호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 로컬 리포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시작될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행사도 꼭 놓치지 마세요!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상설전시 | 워크숍

창작의 정원

일상이 예술로 피어나다

2025. 5. 30. – 2026. 3. 31.

서울특별시 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